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5789 예수님의 사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4
2289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신비.....	5
5612 처음으로 창조된 존재. 빛의 전달자. 하나님을 떠난 타락.....	5
5800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9
5421 빛의 나라의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11
8750 예수의 혼은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육신을 입었는가?.....	13
8353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15
6642 예수의 혼.....	17
8586 예수의 육체는 무엇이었는가?.....	18
4175 하나님이고 사람인 아기 예수.....	20
8486 예수의 공생애 전의 삶.....	21
3621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23
7056 시험에 대항하는 예수의 싸움.....	25
6985 예수의 영적인 사명.....	27
6088 예수는 자신의 역사를 미리 알았다.....	28
8791 수난의 금요일.....	29
7992 인간 예수의 자유의지.....	31
5215 사랑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다.....	32
8185 희생의 죽음이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34
1739 예수의 영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35
7693 예수의 부활과 영화.....	37
8574 예수의 몸이 영화 됨.....	38
8189 예수님의 승천.....	40
8250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41
8422 예수는 하나님이다.....	42
7031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 졌다.“.....	44
8587 구속역사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45
5844 인정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47

너희 사람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희에게 전해진 믿음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일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에게 단지 역사적인 사실로 제시한다면,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면 인간 예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런 육신을 입은 일과 십자가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고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인류를 위한 사명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에 합당하게 너희에게 이유가 주어지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 이 전과는 다른 입장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리를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유일하게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지식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진리를 배우는 일에 더 무관심할수록 더 많이 순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사소한 질문이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러나 사람들이 단지 희귀하게 이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으로 인정받아야 할 인간 예수에 대한 설명을 구한다. 그러나 인간이 구속사역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가 구속사역을 믿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하면, 그들이 실제 영접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준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을 주고,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나눠준다. 하나님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고, 그들이 단지 지식을 영접한다면, 그들에게 깨달음을 의미하는 지식을 준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예수가 그렇게 살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고, 죽게 한 일이 세상적인 이 땅의 일에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 땅의 삶에는 단지 사람의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혼이 처한 상상할 수 없고, 영원한 시간으로 확장될 위험을 피하게 해주려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영접하게 하려면, 사람들은 영적인 원인에 대해 알아야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상상할 수 없게 고통스러운 상태를 향해 다가 가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지 또는 인정하지 않는 지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기 위해 그들은 진리를 가르침받아야 하고, 그들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무엇이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초인간적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아멘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신비는 단지 사랑을 통해 드러날 수 있고, 스스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사랑하는 영적인 생각은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생각을 자원하여 받아들이는 일은, 즉 그런 생각 태어난 곳인 심장에서 뇌로 인도하는 일은, 다시 말해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소유하는 일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자원하여 받아들이는 일이다. 왜냐면 심장의 자원하는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효력을 나타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는 신비이고, 사람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러나 자주 저세상에서도, 여전히 신비로 남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사람들에게는 존재와 연결되어야만, 개념이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랑을 존재의 특성으로 여긴다. 그러나 사랑은 존재 자체이다. 사랑은 성품의 하나로 설명할 수 없고, 자체가 본재인 어떤 영적인 존재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사랑은 선한 것이고, 신적인 것인 반면에 하나님 자신은 단지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정도가 되면, 사람이 비로소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왜냐면 그들이 이제 느끼는 것은 단지 다시 사랑이지만, 하나님과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킨 모든 것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합이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하는 일은 지금까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일이다. 사랑은 어떤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하다. 그러므로 사랑과 하나님은 하나여야만 한다. 그러나 사랑의 부족은 온전하지 못한 정도이고, 이는 또한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상태이다. 왜냐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는 일은 항상 증가된 행복감과, 내면의 평화와 힘이 충만하다는 의식을 갖게 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 모든 것이 신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나타나는, 즉 육체의 행복감이 아니라, 혼이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사랑의 감정으로 표현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그의 출발점인 하나님께 돌아간다.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 즉 그의 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사랑이 사랑을 향해 흘러가고, 이로써 존재와 자체가 단지 사랑인 존재의 근원의 연합이 이뤄진다.

아멘

처음으로 창조된 존재. 빛의 전달자. 하나님을 떠난 타락.

인간으로서 너희의 이성은 어느 정도까지 깊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왜냐면 순수하게 영적인 내용은 단지 영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은 너희 안의 영이 영접할 것이고, 혼을 통해 실제 이성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성은 아주 세상적인 부담을 지니고 있고, 그러므로 이성은 모든 것이 그에게 선명할 정도로 영적 지식을 깊이 꿰뚫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은 너희 안의 영의 불씨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에게 말한 의미를 파악한다.

내 형성하려는 의지는 아주 크고, 내 힘은 지칠 줄 모르고, 나는 내 생각과 계획을 실현하는 일에서 행복을 느꼈다. 이런 축복이 자신을 알리기를 원했고, 내 사랑은 자신을 선물해주기를 원했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존재가 나를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했다. 나는 내가 홀로 존재하는 일을 부족한 점으로 느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런 부족한 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내가 그에게 무한한 행복을 줄 수 있고 또한 내 축복을 더 높이기 위해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존재 안에서 나는 나를 다시 찾기를 원했고, 그런 존재를 창조하기를 원했고, 이런 의지로 충분했다. 왜냐면 내 의지는 힘이었고 항상 사랑과 지혜로 역사했기 때문이다.

나에 의해 생성된 존재는 이제 실제 내 형상이었다. 그러나 존재는 나를 볼 수 없었다. 왜냐면 그가 나를 볼 수 있었다면, 그가 축복으로 인해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어떤 존재도 나를 보는 일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그가 나 자신의 완벽한 형상일 지라도 단지 내 사랑의 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는 나 자신이 사랑의 힘 자체이고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모든 것에게 향하고 그러므로 내가 생성되게 한 존재는 나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존재 안에 나 자신을 위한 그릇을 창조했고, 그릇 안으로 내 사랑의 힘을 지속적으로 부어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존재는 나로부터 내 창조적 의지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사랑을 나에게서 나온 끊임 없는 힘의 흐름을 통해 넘치게 받았다. 그러므로 존재는 이제 똑같은 축복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을 나타낼 수 있었고, 창조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내 축복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었다. 왜냐면 내 힘이 존재가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행복으로 인해 기뻐했다.

이런 존재로부터 이제 수많은 동일한 존재들이 나왔고, 그들 모두는 발산되는 빛과 최고 온전함을 가진 내 사랑의 자녀들이었다. 왜냐면 나에 의해 내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창조된 나 자신의 형상인 존재는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우리의 의지가 같았기 때문이고, 창조된 존재 안에서 우리 둘의 사랑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고, 내 의지와 사랑이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를 통해 역사하는 동안에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세계는 빛으로 가득한 영의 세계였고, 원래 창조된 많은 영들의 세계였다. 나로부터 나온 힘이 제한 없게 존재에게 흘러갔고, 내가 존재를 빛과 힘의 소유자로 택했다.

존재 자신은 아주 축복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축복을 높여 주기를 원했고, 존재가 온전한 존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온전하게 머물기를 원한다면, 내 의지에 묶이지 않고, 존재의 의지를 따라 행하기를 원했다. 왜냐면 내가 창조한 존재는 다른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존재가 자유롭게 역사하고 일할 수 있기를 원했다. 왜냐면 사랑이 그 안에서 아주 강하게 되고, 사랑이 나와 같은 의지를 갖게 하는 일이 신적인 존재의 첫 번째 특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랑을 내 첫번째 피조물로부터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또한 동시에 존재에게 최고의 온전함을 얻게 해야 한다. 이로써 더 이상 창조된 존재로서 내 의지대로 역사하지 않고, 사랑으로 내 뜻을 따르고 무한한 축복을 누리야 한다. 그러나 존재는 이런 의지와 사랑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 전적인 자유의지로 움직여야만 했다. 존재는 나를 보지 못했지만 존재가 빛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가 생성되게 한 무수히 많은 존재들을 보았고, 비록 그가 나에게서 힘을 얻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그들의 창조주라고 느꼈다.

존재는 내 힘을 부러워했다. 자신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이 그를 볼 수 있는 가운데 존재는 자신이 나로부터 생성되었다는 것을 의식했다. 그러나 존재 자신이 창조된 존재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장하면서 존재들에게 자신을 힘의 원천으로,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로 제시했다. 그는 지배하기 위해 내 사랑과 결별을 선언했다.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완전히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일이 너희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그런 일을 설명한다. 자유의지가 행동을 취하기 위해 부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빛과 힘의 전달자는 한편으로 자신을 통한 전달되는 힘의 증거를 보았지만 그러나 힘의 근원 자체는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자신이 창조한 영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만들었고 또한 영들에게 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려고 시도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바뀐 의지를 영들에게 전해 주려고 시도했다. 내 힘을 사용하여 빛의 전달자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에게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 왔고, 그들의 온전함을 증명하는 시간이 다가 왔다. 내 힘이 이런 모든 존재들 안에 있었고, 그들은 빛으로 충만했고,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깨달은 나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사랑으로 그들을 창조한 분에게 향했다. 왜냐하면 그들을 창조한 힘이 사랑이었고, 창조할 능력을 준 이 힘이 처음으로 창조된 존재를 통해 흘렀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이제 결정해야 했고, 분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들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났고, 영적인 존재들이 결정을 내려야만 하도록 재촉을 받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이 빛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많은 존재들에게서 원래 힘의 원천을 향한 갈망이 더 강했고, 나로부터 분리된 자를 향한 사랑이 감소하고, 사랑이 증가된 권세로 나에게 향한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영원으로부터 사랑이라는 깨달음이 그들 안의 빛이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가 실제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깨달음에 얽매어 있지 않은 자유 의지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에게 자유가 없었을 것이다. 영적인 세계가 갈라졌다.

비록 내가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나 자신이 추종자들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 밖에 있는 존재가 추종자들을 얻었다. 그러나 나에게 나온 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여 많은 존재들이 나에게 대적하려는 자에게서 돌아섰다. 그들의 의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향했다. 반면에 빛의 전달자와 그의 추종자들은 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했고, 그러므로 그들은 의지적으로 나를 떠났고, 이런 일은 깊은 곳으로 타락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의해 생성된 가장 빛이 충만한 존재인 빛의 전달자가 내 대적자가 되었다. 반면에 그에 의해 생성되었고, 우리 둘의 사랑의 의지가 창조한 존재들을 채우고 있던 사랑의 불길의 정도에 따라 일부가 나에게 향했

고, 다른 일부가 그에게 향했다. 왜냐면 빛 전달자가 나와 분리되는 순간에 존재들에게 안정된 기댈 곳을 향한 정해지지 않은 갈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유의지가 역사하기 시작했고, 자유의지는 나에게 의해 강제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고, 또한 내 대적자로부터 강제로 영향을 받지 않았고, 단지 모든 존재를 자신을 위해 얻기 원하는 우리 둘의 힘의 발산을 받았다. 내 힘의 흐름은 단지 사랑이었고 존재들에게 아주 강하게 역사하여 존재들이 나를 보지 않고 나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러나 나에게 의해 첫번째로 창조된 존재의 의지 변화도 또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존재들이 첫번째로 창조된 존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존재들이 그를 따랐다. 즉 많은 존재들이 그의 의지에 복종했고, 나를 떠났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원래 창조된 존재들이 자신을 내 자녀로 느꼈고, 자유의지로 나에게 충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가 단지 훨씬 더 적었다. 그들은 최초의 피조물들로서, 내 빛의 전달자의 가장 축복된 창조하려는 의지와 그에게 흘러가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힘에 의해 생성되었다. 이런 사랑의 힘이 또한 존재들에게 있었고, 끊임없이 나에게 향하도록 그들을 촉구했다. 왜냐면 그들은 현재 그들의 생산자의 잘못된 의지를 깨닫고 그러므로 그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다. 다른 존재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을 얻는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맹목적으로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를 따랐고, 그들의 의지는 존중되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왜냐면 이런 의지의 결정이 피조물들을 자립적인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를 떠난 존재는 많은 추종자들을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다. 왜냐면 나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깊은 곳을 추구하는 일을 의미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상태에 되는 일을 의미하고 이로써 어둠과 무기력함과 지식과 힘의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내 자녀들은 가장 빛나는 빛과 측량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축복된 가운데 머물렀다.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가 타락한 후에 그의 힘이 사라졌다. 그가 내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그의 힘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권세와 힘은 그의 추종자들이었고, 그는 이제 어둠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내가 내 대적자에게 영원히 넘기지 않은 내 사랑의 산물이고, 이런 존재들이 그들 안에 아직 그들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그에게 속한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의지를 나에게 돌리는 일에 성공을 하면, 그가 그들을 잃게 되고, 그러므로 그의 힘이 같은 정도로 감소한다. 이런 일은 항상 존재의 자유의지를 전제 조건으로 내가 그의 권세로부터 그에게 복종하는 존재를 구원하는 일과 같다.

내 영원한 구원 계획이 이런 일을 목표로 한다. 빛의 나라의 모든 거주자들과 내 천사들과 천사장들이 가장 큰 열심과 가장 충만한 사랑으로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왜냐면 그들 모두가 내 동역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타락한 형제들이 한때 자발적으로 잃은 축복을 되찾게 해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해방의 역사는 한때 타락한 존재들의 마지막 존재가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내 사랑에 의해 첫번째로 생성된 존재가 내 사랑을 갈망하는 가운데 나에게 다시 다가올 때까지, 이런 후회하는 존재가 한때 자발적으로 떠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성공할 것이다.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높이 성장하기 위해 끝없이 긴 시간이 필요했다. 내 각각의 창조물들도 역시 끝없이 긴 시간이 필요했고, 동시에 항상 더 성숙한 영적인 존재가 자신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내 창조물 안에서 묵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해야만 했다. 항상 또 다시 새로운 형체가 창조되었고, 이런 형체에게 항상 또 다시 사명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 땅의 창조물은 순간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성장정도를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걸형체를 찾을 때까지 무한하게 긴 시간이 소요됐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항상 성숙하게 되는 일이 항상 또 다시 영적인 존재를 받아드릴 새로운 창조물을 필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의무의 단계에 있는 동안에 내가 창조하는 일은 가장 깊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위해 성숙할 장소로서 이 땅을 창조하는 일을 의미했다. 영적인 존재가 성장해야 할 장소에서 존재가 한때 잘못 사용하는 자유의지를 묵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게 돌려줘야 하는 성장을 이뤄야 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하게 된 영적인 존재를 위한 형체가 창조돼야만 하고, 이로써 창조된 형체 안에서 성숙하게 된 영적인 존재가 자유의지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돼야 한다. 이런 창조물이 인간이고, 인간이 자유의지에 더하여 이성과 이해력을 받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을 의식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일이 의지를 시험하는 일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의 이웃과 언어를 통해 교통할 수 있는 점에서 인간은 이 전에 생성된 창조물과는 다르다.

인간의 걸 형체는 이미 의무 상태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 무수히 많은 성숙한 혼의 입자들을 받아드리도록 정함을 받았다. 그러나 인간의 걸 형체의 생명체는 아직 의무의 단계에서 자연의 법칙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고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 생명체는 아주 적게 생각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끝없이 긴 성장기간에 걸쳐 성장해 온 영적인 존재들을 모으는 역할을 했고, 생명체는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위한 내 지혜와 사랑이 형성한 창조의 작품이다. 그러나 단지 자유의지와 이성과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을 소유한 인간을 비로소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피조물을 영화시키는 계획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런 존재들인 사람들이 내 가르침을 받는 일이 필요했다. 그들은 이런 내 가르침대로 그들의 생각할 능력과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야 하고,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그들의 자유의지로 살고 창조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내 가르침들과 내 뜻을 거역하고, 그들이 올라선 깊은 곳으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었다.

나는 인간을 창조했고, 어느 정도의 영적인 성장정도에 도달한 영적인 존재에게 내 지혜와 내 사랑에 합당하게 걸형체를 부여했고 또한 인간이 이제 성취시켜야만 하는 과제를 부여했다. 무수히 많은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이제 혼으로써 형체에게 생명을 부여한 영적인 존재가 걸 형체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걸형체가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는 끊임없이 활동하는 힘이고, 실제 예비 단계인 끝없이 긴 성장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묶여 있었고, 제한이 없는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걸 형체인 인간 안에서 영적

인 존재가 다시 행할 수 있고, 자신이 소유한 힘을 확장시킬 수 있고, 나와 의 연합을 통해 자신의 힘을 무한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측량할 수 없게 내 힘이 제공됐고, 그들은 특별하게 힘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땅의 시험의 삶이 그들이 완전히 영화된 상태로 세상의 곁형체를 벗고, 진정한 자녀로서 그들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모든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의지의 시험을 거쳐야만 했다. 최초의 인간이 이런 시험을 통과했다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쉽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1953년 11월 1일) 최초의 사람들이 나를 떠남으로 인해 온전하지 못하게 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안에 존재를 창조했고, 그들 자신을 피조물로 인식한 존재들은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하는 힘과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해 내 뜻을 깨닫고 수행할 수 있었다. 나는 나와 떨어진 거리가 멀지라도 이전의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인,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게 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때 타락한 원래의 영을 자신 안에 지닌 최초의 이 땅의 창조물이었다. 인간은 이제 원래 영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야 하고, 또한 자신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이로써 그가 다시 자유로운 영적인 존재로서 나와 영원이 하나가 된 가운데 나와 함께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런 일이 처음으로 창조된 인간의 과제였고, 이 과제는 종말의 때까지, 타락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완전히 영화되기까지, 모든 인간의 과제로 머문다.

첫 번째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의지의 시험은 특별히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험을 위해 내 대적자에게 그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권리를 부여해야만 했고, 인간이 이 영향에 굴복했다. 그는 두 번째로 나를 떠났고, 이 일은 이 땅의 첫 번째 타락이었고, 비록 사람들이 한때 나를 떠난 영의 타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지라도 인류는 이 땅의 첫 번째 타락을 알았다. 그러나 영의 타락이 비로소 모든 것을 설명한다. 최초의 사람이 나에게 의해 첫 번째로 존재하게 된 힘과 빛을 전적으로 소유해야만 하는 창조물이었다면, 타락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온전하지 못한 것이 나올 수 없고 그러면 어떤 대적하는 세력도 그에게 역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유를 영들의 타락에서 찾아야만 한다. 따라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인간의 혼에게서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 혼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는 있었지만 합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은 실제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또한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만 했고, 내 대적자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일은 모든 사람이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을 위해 싸움과 고통이 함께 하는 고된 이 땅의 삶의 과정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타락으로 연약해진 인류를 돕기 위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를 자원하여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람이 그의 모든 후손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다리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는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의 나라로 향하는 다리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오랫동안 사탄의 속박 아래 머물러야만 했다.

(1953년 11월 2일) 내가 첫번째로 창조한 존재인 루시퍼에게 요구한 의지의 결정은 절대로 계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이는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였다. 그가 가진 의지의 방향은 유일하게 권력과 혼자서 지배권을 가지려는 갈망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나에게서 생성되었다는 것을 실제 의식했지만, 그가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출처로 깨달았지만,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의지를 존재 안에 넣어주지 않았고, 존재가 스스로 내가 준 자유의지로 변화가 되었다. 이 점이 루시퍼의 첫 번째 타락과 첫 번째 사람의 타락 사이의 차이였다. 인간은 자신 안에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그가 어기지 말아야 할 계명을 주었고, 대적하는 영이 인간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쉽게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직 대적자의 일부였고, 인간이 타락을 불가능하게 만든 완벽함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적자가 인간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은 타락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즉 인간이 계명을 어길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인간 안의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모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막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의 타락의 결과로 비로소 창조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둘러싸고 있는 걸 형태로 영적인 존재를 감싸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형체 안에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거하고 있고, 따라서 인간 아담은 이미 한때 지은 죄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내 계명에 순종했다면, 그는 죄를 물리칠 수 있었고, 그가 유전된 죄짐을 갚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타락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다시 나에게 돌아 오는 일을 끝없이 지연시켰지만, 그러나 인간 아담이 해야 할 내 의지를 전적으로 따르고,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통해 나와 다시 전적으로 연합하고, 힘과 빛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일을 내가 주는 계명이 없이 행한, 인간 예수의 구속사역을 통해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다시 나에게 돌아 오는 일이 가능해졌다.

아멘

빛의 나라의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B.D. No. 5421

1952년 6월 26일

십자가에 못박힌 구세주의 이름으로 하늘나라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 **십**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리지만 그러나 구세주를 깨닫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가 닫혀 있게 된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너희 사람들은 구세주의 십자가의 죽음 전에는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로 알려진 두 세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음을 알아야만 한다. 두 세계가 서로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두 나라는 서로 전혀 연결되지 않은 완전히 다른 두 영역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은 창조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를 가진 세상을 만든 반면에 하나님편에 선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렀고 따라서 또한 온전하고 빛과 제한이 없는 힘의 영역에 머물렀던 것에서 구해야만 한다.

두 세계 사이에는 연결이 이뤄질 수 없다. 왜냐면 서로 너무 크게 상반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어떤 의미에서 반대의 극을 위해 추구하고, 절대로운 극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이 없었다. 이는 두 영역의 지배 세력이 서로 완전히 반대이고, 자유와 빛과 힘을 가진 최고로 온전하게 되는 일과 최고의 역사를 행하도록 정함받은 영적인 존재가 노예가 되는 서로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설명으로 더욱 이해하기 쉽게 된다.

그러므로 이 두 세계 사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간격이 있었다. 어두움의 편에서는 이 간격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머문 영의 세계에서는 그의 거주자들이 깨달음이 있었고 이로써 또한 다리를 건설하는 유일한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영의 세계에서 온 존재가 어두움의 영역으로 가는 시도를 해서, 그곳에서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존재가 갈 수 있게 해주는 길을 개척해야만 했다.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존재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고, 그런후 어두움의 세계의 주민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하고, 이로써 그들이 그의 모범을 통해 자극을 받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대신 목표가 위에 있는 인간 예수와 같은 방향을 추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야만 했다. 다시 말해 인간 예수는 어두움 속에 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떠났던 나라로 돌아갔다.

위로 향하려는 의지는 항상 옳은 길을 찾는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런 의지가 부족했고, 의지가 아래로 향해 있었다. 왜냐면 부정적인 세력들의 역사가 항상 어두움의 영역에서 성공하고, 이런 세력들은 단지 하나의 목표인 존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해 존재로부터 깨달음을 빼앗는 일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존재의 의지가 어두움의 권세자와 그의 역사에 제동을 걸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모든 불리한 영향에 저항이 없이 노출되어 있고, 빛의 세계는 이를 알고 있었고, 한 원래 창조된 영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대적자의 악한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이제 하나님 자신에 의해 생성된 형상들인 하나님의 두 자녀가 싸웠다. 왜냐면 그들이 더 이상 같은 뜻과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서로 대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빛의 존재가 먼저 신적인 힘을 빼앗는 걸형체를 입는 방식으로 이뤄져야만 했다. 빛의 존재가 인간으로서 모든 타락한 영들을 인간이 되게 만든 자와 싸워야만 했다. 빛의 존재가 하나님의 대적자보다 강하면 대적자의 힘이 꺾이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적자를 물리칠 희망이 있게 되고 이로써 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세상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 예수의 혼이 높은 곳에서 어떤 것을 가져와 이 땅에 비취주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였다. 어떤 존재도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든지 타오르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지에 의해 꺼질 수도 있고, 이 사랑이 빛의 나라로 가는

다리이다. 왜냐면 사랑이 위로 향해 영원한 사랑 자체인 하나님께 향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항상 사랑이 있는 곳을 구하고,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사랑이 빛의 존재가 이 땅으로 내려가게 했고, 사랑이 영원한 사랑과 연결되어 머물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 사이에 다리가 세워졌다. 그러나 어두운 이 땅의 존재들은 이 다리를 볼 수 없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활용하지 않고, 빛의 나라를 향한 올바른 인도자를 찾았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자신의 대적자를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역사에 대해 감사하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다스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 사이의 간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열어 준 유일하게 아버지께 인도하는 길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머문다. 왜냐면 아직 전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대적자의 영향을 받는 그가 자신의 저항을 포기하고, 그의 무한한 사랑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끄는 길을 찾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될 때까지, 그가 영원한 질서의 법을 자원하여 따를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의 혼은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육신을 입었는가?

B.D. No. 8750

1964년 2월 11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는 지식으로 인도하면서 항상 또 다시 내 사랑을 너희에게 계시한다. 왜냐면 이 지식은 밝은 빛과 같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던 것들을 드러내 알게 해주고 너희 혼의 성장을 의미하는 너희의 깨달음의 정도를 다시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항상 사랑에 기초해서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야만 한다. 너희가 어느 정도의 사랑의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나는 너희에게 말할 수 없고 사랑이 너희 안에 깨달음의 빛을 항상 밝게 비춰줄 것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내가 너희에게 답변해줄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내가 단지 너희가 알기를 갈망하는 영역을 알기 때문이다. 한때 타락하지 않은 모든 높은 영들은 가장 높은 목표인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기 위한 깊은 곳을 통과하는 과정을 가기 위해 이 땅으로 육신을 입는다. 그들은 이런 목적을 위해 육신 안에 거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들은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한때 타락했던 모든 원래의 영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고 내 대적자가 그들에게 시도하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만 한다. 그들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아버지인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 진실로 깊은 곳을 통과해야만 한다.

한때 타락했던 존재로서 나에게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느 때든지 빛의 존재들이 내려왔다. 이런 빛의 존재들의 사랑은 아주 강하고 깊어 계속해서 도울 준비되어 있고 단지 내 길 잃은 자녀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려고 애를 썼다. 나는 그들이 돕기 위해 이 땅에

임하길 원하면, 그들을 막지 않았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게 된 그들은 항상 나로부터 나온 존재이고 내 사랑의 빛을 비추임을 받은 최고의 온전한 피조물으로써 나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던 존재들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려는 빛의 존재는 없다.

인간 예수로써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시킨 혼도 마찬가지로 그는 내가 자율적인 생명을 부여한 나에 의해 원래 초기부터 사랑의 빛의 비추임으로 생성된 빛의 영이었다. 이 영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자신이 맡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부터 타락한 존재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부터 첫 인간이 실패할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러므로 그는 인간 예수로써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다. 그는 실제 처음부터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일에 역사했다. 왜냐하면 나에게 신실하게 남은 존재들인 그들이 나에게 남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존재로써 무한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내 의지와 내 힘이 흘러갔기 때문이다.

이런 혼이 이 땅으로 임했고 이 혼은 전에도 이미 빛의 존재로써 나를 섬겼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을 이뤘다. 즉 이 혼은 빛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 자신이 이 혼을 통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런 모든 빛의 영이 나에게 하내 형체였지만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단지 잠시 볼 수 있었을 지라도 지속적인 형체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빛의 영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들 가운데 같은 육체의 입자 안에서 볼 수 있게 역사하며 가르침을 주고 대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후에는 사라졌던 영의 존재이고 영의 존재로 머물렀다.

실제로 이런 높은 빛의 존재들이 이 땅의 육신을 입는 일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나 자신으로부터 보냄 받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내 의지를 알려주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들의 혼이 왜 위험 가운데 살고 있고 이 땅의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빛의 존재가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일과 나 자신이 빛의 영을 통해 나 자신을 알려주는 일인 빛의 영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 사이에 차이를 뒤야만 한다. 그러면 이런 빛의 영은 인간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내 겉형체가 아니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기 위한 일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위로부터 직접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 사람들의 의지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육신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도 내 겉형체로 사용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겉형체가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았다. 두 번째 경우에는 겉형체가 단지 잠시 동안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그들이 긴급하게 내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혼이 겉형체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되기 전에 이제 여러 차례 육신을 입었다고 말하는 일을 너희는 항상 사랑인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할 때 영적인 형체를 택하여 단지 영적으로 나타난 일로 영접할 수 있다. 비록 나 자신이 내 말씀을 통해 또는 한 사람을 통해 나를 나타낼 수 있고 이 한 사람이 빛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을 지라도 내가 인간이 되기 전에 예수의 혼이 육신을 입었던 일은 없었다.

예수의 혼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선택을 받았다. 이 혼은 진실로 가장 높은 빛의 영이고 나에 의해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다. 즉 이 혼은 내 힘과

아주 큰 내 사랑이 첫 번째로 창조한 존재의 의지로부터 생성되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인 나 자신이 단지 최고의 빛의 혼인 예수 안에서 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혼은 빛의 영으로써 전에 이미 아주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하여 내가 그들에게 이런 빛의 존재를 보낼 수 있었고 이 빛의 존재들을 통해 나 자신이 직접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나를 섬겼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빛의 존재들이 이전에 인간으로 육신을 입었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내 말씀을 전해줘 사람들과 나와 연결을 유지시키고 동시에 나에게 말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 거했던 일을 진실로 영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잘못 된 상상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예수 혼은 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 택함을 받았고 처음부터 첫 사람의 실패를 깨닫는 가운데 이런 공휴의 사역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미 여러 차례 육신을 입었다고 말하는 일은 잘못 된 일이다. 왜냐면 예수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된 역사는 한번뿐인 역사이고 한번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를 인류뿐만 아니라 빛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면 이와 같은 역사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는 많은 존재들 중의 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는 너희 인간들과 빛의 나라의 모든 존재를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 하는 나 자신이 영원히 볼 수 있게 남기 위해 형체로 택함받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 존재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왜냐면 나와 루시퍼의 사랑에서 발산되어 나온 첫 번째 영으로써 그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깊어 그가 단지 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 합당한 존재였고 그러므로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이전에 거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그가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면 그가 귀환을 시키려는 내 계획을 알았고 그는 항상 전적으로 모두 내 의지에 따랐고 빛과 능력이 충만한 존재로써 내 뜻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주 가까이에 있어 전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와 나는 하나가 돼야만 했다. 왜냐면 내가 그 안에서 그리고 그가 내 안에서 전적으로 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존재들이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빛의 정도에 다시 도달하게 되면, 그들이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B.D. No. 8353

1962년 12월 12일

나는 어둠 속으로 내 빛을 주기 위해 빛이 있는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왜냐하면 영의 해는 졌고 어두운 밤을 한 줄기의 빛도 비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가장 큰 위험에 처했다. 그들의 위험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들을 해방시켜 줄 구원자를 불렀다. 왜냐면 아직 소수의 사람들이 내 대적자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지 않았고 사랑의 삶을 살았고 아직 나와 연결을 아직 완전히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환난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기를 나에게 청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다. 내 사랑에서 생성되었고 원래의 영들이 나를 떠나 타락했을 때 나에게 신실하게 머물렀던 빛의 영이 단 일회적인 역사이지만 그러나 온 인류

에게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 자신을 나에게 제공했고 그는 이 땅에 임해서 사람들 가운데 거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는 큰 사명을 맡았다. 이 사명은 자신의 세상의 곁형체를 준비하는 나 자신이 거하는 거처로 섬기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내 피조물들을 돌보기 원했고 나 자신이 그들의 큰 죄를 해결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큰 죄는 그들이 한때 자원하여 나를 떠나 타락한 죄이다.

내 사랑의 자녀인 빛의 존재가 나를 위해 이런 속죄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인간으로서 아기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의 과정을 시작했고 그의 이 땅의 과정은 특별하게 고난이 가득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의 거처로 섬기기 위해 그의 육체 또한 영화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가 탄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아기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의 엄청난 빛이 아기의 아주 지혜로운 표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혼은 내 대적자에 의해 특별한 공격을 받았다. 내 대적자는 그에게 속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시켜 그의 몸을 차지하도록 이끌었다. 이로써 육체가 이런 영향으로 강한 유혹에 빠졌고 인간 예수는 이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맞서 싸워야만 했다.

인간 예수 안의 사랑이 그에게 싸울 힘을 주었지만 그는 특별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고 그의 모든 이 땅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의 고통을 알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자원하여 이 길을 갔다. 그의 이 땅의 전체의 삶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었고 사랑 자체인 나 자신이 또한 항상 그 안에 거할 수 있었고 그가 사람들의 큰 죄를 속죄하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그에게 힘을 줄 수 있었다.

그는 내 아들이었고 이 땅에서 나와 완전한 하나가 된 빛의 혼이었고 그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를 일을 완성했다. 이런 일은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의 목표이다. 즉 피조물에서 내 자녀가 되는 일이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의 목표이다. 그러면 자녀는 자유 의지로 내 의지를 전적으로 따르고 이로써 최고로 높은 완성의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 예수는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영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신적인 존재가 되는 일을 이 땅의 삶을 통해 자유 의지로 이뤄야만 했고 깊은 곳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었다.

그러므로 그의 혼도 내 대적자의 모든 공격에 노출되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내 대적자가 또한 타락하게 만들 수 없었던 그의 혼을 소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땅은 내 대적자의 나라이고 그러므로 이 땅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의 혼은 또한 모든 루시퍼의 총동과 공격에 노출되었고 인간 예수는 이에 저항해야만 했다. 그는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원한 아버지 편에 서야만 했고 나 자신을 전우로 삼아야만 했다. 그가 끊임없이 내 사랑을 구하고 또한 그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 내 사랑을 받으면서 나 자신을 전우로 삼았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이고 인간 예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사랑 자체가 힘이기에 때문에 그는 이런 사랑으로 저항할 수 있었고 구속의 역사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인류에게 진실로 구세주가 보내졌고 이미 오래 전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임했고 빛이 이 땅에 임했다. 예수를 인정하고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를 원했던 나 자신을 예수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의 심장에 빛을 비추었다. 빛이 어두움을 물리쳤고 내 대적자에 대항해서 싸울 전사인 예수가 나타났고 내 대적자를 이겼다. 그러나 예수의 무기는 사랑이었고 내 대적자자는 사랑에 맞서 헛되이 싸웠다. 내 대적자는 사랑 앞에 항상 굴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 자체이고 한때 너희를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만든 자보다 진정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의 혼.

B.D. No. 6642

1956년 9월 11일

영이 나와 너희에게 전하는 나로부터 나온 모든 내용은 의미가 일치할 것이다. 내 영이 너희에게 계시해주는 말씀에 사람이 자원하여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실제 자유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영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나 자신이 모순된 영적인 내용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대한 해명을 요청해야만 하고 내가 설명해줄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구해야만 한다.

인간 예수의 혼은 위로부터 왔고 나에게서 나온 빛의 영이 이 땅으로 임했다. 이 빛의 영은 창조된 영들의 큰 무리가 나를 떠나 깊이 타락했을 때 그의 모든 의지의 자유로 나에게 머물렀다. 그러나 이 빛의 영에게 인간으로서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었고 그는 빛이 없는 영역으로 내려 가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을 그의 풍성한 빛을 당분간 남겨두었다. 왜냐면 사람들이 위에서 온 그런 빛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고 이런 빛의 광선이 그들이 소멸되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을 위한 구속 역사를 실행하는 과제를 수행해야만 했고 그는 이웃과 같은 영역에 거해야만 했다. 왜냐면 이웃에게 그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이 되는 길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간 예수는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져야만 했고 그의 혼이 빛의 나라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졌다.

아기 예수의 육체 안에 혼이 거했고 이 혼은 그의 세상의 겉형체를 통해 다른 모든 사람처럼 생각하고 원하고 느꼈다. 그러므로 혼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과 또한 혼의 겉형체를 통해 같은 열정과 욕망이 혼 안에서 깨어나야만 했다. 왜냐면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는 일은 또한 내적으로 외적으로 같은 본능에 맞서 싸우는 일을 의미하고 혼이 영화되는 일을 추구해야 하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목적이자 목표대로 혼이 자신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영화되는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의 싸움과 투쟁은 같은 성정을 가진 혼에게 필요한 싸움과 투쟁과 같았다. 그러나 예수의 혼은 죄 많은 혼 안에 절대로 자신을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 자신에게 거처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 빛의 나라에서 내려왔고 예수의 혼은 죄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충동과 정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약점과 정욕이 강했고 그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강했을지라도 그가 유혹에 대항했고 대항할 수 있었다. 그의 사랑이 강했고 이런 사랑이 그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인간 예수의 혼이 빛을 뒤에 두고 어두움 속으로 들어갔고 이 땅에 묶여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예수의 혼에게 매달렸고 어두움의 세력이 모든 인간 혼을 억압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의 혼을 억압했다. 예수는 인간으로 이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혼이 이런 존재들을

물리칠 수 없었고 힘든 싸움을 통해 이런 존재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만 했고 혼이 유혹을 받으면, 혼이 스스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야만 했다. 혼은 자신이 버리지 않은 사랑의 힘으로 이런 의지를 드릴 수 있었다. 혼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랑은 혼에게 속했고 속하여 머물렀다. 왜냐면 예수가 그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고 완수할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단지 자신 안에서 사랑이 타오르게 하고 불을 지핀다면, 하나님의 힘이 그런 모든 사람을 승리자로 만들 수 있다.

구속사역이 사람에게 의해 이뤄져야만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예수를 먼저 이 땅에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일에 성공한 인간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연법칙에 완전히 종속되었고 육체는 모든 다른 이웃처럼 창조되었고 순수하지 못한 영들이 그의 혼을 점령했을 때 그의 혼은 저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하지 못한 영들이 절대로 우위를 차지하게 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의 뜻이 그런 일을 막았고 그가 또한 사랑을 통해 필요한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투쟁해야만 했다. 왜냐면 그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하고 모범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을 영화시키기 위해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실현 가능한 일을 단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예수가 사람들이 전혀 얻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이 그의 혼이 위로부터 왔고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이 거했고 거할 수 있었다는 일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는 죄가 없었고 순수했기 때문이고 사랑이 그에게 모든 유혹에 저항할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의 육체는 무엇이었는가?

B.D. No. 8586

1963년 8월 14일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내가 원하는 일은 일어나고 내가 창조하기 원하는 것은 실행된 생각으로 이미 내 앞에 존재하게 된다. 나에게 정해진 한계가 없고 착상에도 제한이 없고 영적인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실행하는 역사에도 제한이 없다. 왜냐면 너희 눈 앞에 있는 세상적인 창조물이든 영적인 창조물이든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것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나에게서 직접 발산된 영적인 힘으로서 내 뜻대로 형체를 입은 존재인지를 내가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어떤 힘이라도 모든 종류의 창조물로 변화시키거나 또는 형성할 수 있다.

나는 또한 한때 죄를 지은 영적인 존재가 마지막 형태인 인간의 육체로서 혼이 온전함에도 달하도록 혼이 육체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직접 발산한 힘에게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 내재된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내가 창조한 몸인 죄를 짓지 않은 영적인 존재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 뜻대로 연약한 상태에 처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모든 육체가 가진 특징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모든 일이 내 뜻과 내 권세 아래 있다.

그러나 순수하고 신적인 모든 존재는 항상 세상과 불순한 영적인 존재인 물질과의 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 예수의 구속 사역은 지극히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대적하는 세력들이 특별하게 역사해 순수하게 신적인 예수의 겉형체에 영향을 미쳤고 신적이고 영적인 힘의 발산으로 여길 수 있는 예수의 겉형체는 모든 대적하는 존재들을 파괴하거나 그들의 역사를 방해하는 역사를 행하지 않았고 다른 모든 육체적인 겉형태와 마찬가지로 육체를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저항하고 그들을 순하게 만드는 일을 했고 모든 유혹에 맞서 같은 싸움을 싸웠다. 왜냐면 인간 예수는 이웃에게 모범을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웃이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살아야 할 삶의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예수의 몸이 세상적인 물질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물질이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의 역사였고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타락한 영적인 존재에게서 온 입자들이 아니었고 나에게서 나온 힘이었고 이 힘이 내 뜻대로 형체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런 형체가 인간 예수에게 심한 요구를 적게 하지 않았다. 왜냐면 나에게서 온 힘이 이 땅에 임하면, 즉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내 대적자의 나라에 임하면, 이런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영적이지 못한 입자들의 공격을 받았고 예수의 혼에 달라붙고 동시에 예수의 육체를 점령한 이런 모든 입자들은 구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런 입자들에게 패배당하지 않기 위해 대항해 싸워야만 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초인적인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 왜냐면 그가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능력을 통한 특권이 인간 예수에게 부여되지 않았다. (1963년 8월 13일)

인간으로서 그는 다른 모든 인간들과 같아야만 했고 또한 그의 육체가 내 힘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그가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추구하는 일에 어떤 장점도 주지 않았다. 그의 육체는 그의 혼에게 단지 끝 없이 괴롭히는 속박이었다. 왜냐면 혼은 자유하고 가장 밝은 빛에서 왔고 어두움 속에 머물러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어두움이 육체를 공격해 육체에게 고통을 주었고 혼이 이런 고통을 느꼈고 육체도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없었다. 예수는 자신의 사랑의 결과로 모든 연관관계를 깨달았고 자신의 운명에 순종했고 이로써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만 한다는 것을 이미 정확히 예견했다.

그러나 완전히 신적인 존재가 되는 일은 단지 특별한 고난과 넘치는 사랑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순수하고 죄없는 육체와 빛의 나라에서 온 혼이 어두움의 권세자의 영역에 머무르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 왜냐면 육체가 육체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인간 예수를 죄에 빠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어두움의 권세자와 그의 세력들에게 대항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두움의 권세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사랑을 통해 대적자의 모든 공격에 저항할 힘을 구매했다는 증거를 주었다. 게다가 인간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강해진 의지를 구매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들의 간수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들이 원수에게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다. 예수는 인간으로서 그들을 이했었고 그들이 자신에게 그들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를 구하면, 그는 진실로 그들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예수는 너희 혼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대적자가 어떻게 너희의 육체를 공격하는지를 알고 이 땅의 삶의 싸움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왜냐면 육체가 아직 대적자의 일부이고 대적자가 육체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이로써 너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했고 그는 자신의 피로 너희를 구속했고 너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아멘

하나님이요 사람인 아기 예수.

B.D. No. 4175

1947년 11월 25일

해명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해명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분이 그가 받은 영적인 질문에 진리에 합당한 답변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비밀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자신으로부터 설명을 받아, 영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받은, 잘 이해할 수 있게 이웃 사람에게 전할 수 없는 계시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남김 없는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인간 예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고, 그의 탄생에 모든 종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동반되었다. 그럴지라도 육체는 우선 이 땅의 물질이었고, 이 땅의 물질로 머물렀다. 혼은 빛의 나라에서 왔고, 이로써 죄가 없이 이 땅에 임했고,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이 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할 수 있었고, 자신의 뜻에 장애물로 대적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은 동시에 아기 예수 안에 거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기에게 생명을 주었고,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그의 가까이에 온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였다. 영원한 신성이 자신을 드러냈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심장이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있었고,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도록 자신을 연 사람들은 영원한 신성을 깨달았다.

예수의 탄생 당시에 단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 자신이 아기를 보기에 합당하게 여긴 사람들이 예수 가까이로 다가왔다. 하나님은 아기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의식이 깨어나게 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아기의 육체를 보고 다른 아기와 다르게 여기지 않았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의 소년 시절과 훗날에도 예수를 사람과 다르지 않게 여겼다. 왜냐면 비록 예수가 그의 모범적인 사랑의 삶을 통해 항상 점점 더 하나님과 연합했고, 그의 육체가 영화되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자신의 신성과 자신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품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충만함으로 자신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제한이 없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기 위해 자신을 형성해야만 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를 통해 말했고, 기적을 행했고, 실제 죽음에게 명령을 했다. 사람들은 인간 예수를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이 보낸 인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 시절뿐만 아니라, 훗날의 예수의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시절에도 예수 안의 하나님을 깨닫게 했다. 예수의 가르치는 사역 당신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신적인 성품에 접근한 사람들이 예수를 깨달았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 안에 거했고, 예수를 통해 역사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다.

그러나 인간의 걸형체가 때때로 그런 사람들에게 의심이 들게 한다. 왜냐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인간이 된 비밀과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하게 연합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남김 없이 설명해줄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혼으로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순수하게 이성을 통해 전적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줄 수 없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신성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 절대로 부인해서도 안 된다. 왜냐면 인간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거하는 최고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의 공생애 전의 삶.

B.D. No. 8486

1963년 5월 3일

너희가 단지 진리를 갈망하면, 나는 너희에게 항상 모든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고 나는 너희가 가진 질문에 답변을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답변을 진리 때문에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희가 여러 가지 관점이 주장되는 가운데 선명하게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하려는 사명을 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설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 예수의 이 땅의 길은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다. 단지 영적인 길을 통해 너희 사람들에게 예수가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어디에서 그의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가족들과 가장 단순한 생활을 했다는 한 가지는 확실 하다. 그는 부모님과 교류하던 사람들 무리 가운데도 항상 아주 뒤로 물러서 있었고 그는 큰 모임과 같은 모든 감각적인 즐거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했다. 그는 항상 혼자 머물렀고 그는 위험 가운데 있는 자신의 이웃들을 도우려는 특별한 자세를 통해 내적으로 성장했다.

왜냐면 그의 심장이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그의 지혜가 증가되게 해서 그에게 지식이 주어지게 했고 그는 모든 것을 밝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초기의 이런 내적인 밝음이 번개와 같이 그 안에서 비추어 주었을지라도 그러다가 다시 한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모든 다른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같은 나 이 또래의 모든 아이들보다 지식이 월등 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영접하는 일을 거절했다. 너희 사람들은 사랑이 가장 좋은 선생이라는 한 가지를 믿을 수 있다. 자신 안에 사랑을 올바르게 확장시킨 사람은 이웃들에 의해 절대로 이와 같은 빈틈이 없는 깨달음을 제공할 수 없는 깨달음에 내면으로부터 도달한다.

너희는 이제 예수의 혼이 빛의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예수의 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제 빛을 버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가장 순수한 빛의 존재로서 내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충만한 사랑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인간으로써 사랑의 빛은 모든 크기로 역시할 수 없었다. 왜냐면

이웃이 이를 견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예수 안에서 사랑의 빛이 계속 발산되어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써 그는 아주 빠르게 인류의 큰 위험과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고 자신이 사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이제 그가 소년으로써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그가 서기관들을 놀라게 하는 답변을 그들에게 해주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그가 이미 소년으로써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은 자신 안의 밝은 불길이 근원이 되어 그에게 가르쳐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해주는 일이다. 그의 사랑은 항상 강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의 지혜가 증가했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이미 선생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았다. 왜냐면 그가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학교로부터 자신을 멀리 했기 때문이다.

그가 성전에서 가르친 후 그의 실제적인 가르치는 역사를 시작하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관해 후손들에게 어떤 기록도 남겨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이 주는데로 아주 서로 다른 짐작과 설명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삶이 아주 조용한 가운데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이다. 왜냐면 이 기간 동안에는 그가 모든 신적인 능력을 잃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공개적인 눈을 벗어나 전적으로 은둔하는 삶을 살았고 목수 아들로써 그의 직업인 목수 일을 행했다.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면 이 기간은 예수가 인간으로써 성장해야만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성장해 완성에 이르는 이 땅에 과정의 모범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시간 동안 그 주변의 모든 것이 조용했고 그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는 영적인 발달이 뒤쳐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왜냐면 그는 자신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리 하고 그의 대답은 항상 단지 짧았고 일반적인 세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의 과제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하는 특별히 성전에 속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을 피했다. 그러므로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한때 그가 하나님이 보낸 아주 특별한 아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그의 가까운 친척들도 그의 주변에 없었다.

세상에서 거하는 기간은 예수에게 아주 특별하게 고통이 충만한 기간이었다. 왜냐면 외부에서 더 이상 깨달을 수 없는 것이 그러나 내면에 깊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예수 자신이 이를 해결해야만 했고 자신이 인간으로써 모든 것과 씨름을 해야만 했다. 그는 인간으로써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육체를 공격하는 모든 내적인 충동과 정욕에 대항해 싸워야만 했고 그는 고난을 당해야만 하고 싸워야만 하고 사랑 안에서 섬기는 일을 통해 성장해야만 했다. 왜냐면 그는 지혜를 발산하는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곧 모든 연관 관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있게 해주는 성장 정도에 먼저 도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조용함 가운데 은둔한 가운데 단순한 목수의 아들로써 이런 성장 과정에 도달했고 그는 자신의 고향을 벗어나지 않고 단지 내적인 성장을 위해 한적한 곳으로 자신이 물러나서 자주 홀로 있기를 구했다. 그는 산에 올라 자주 온 종일 단지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되어 그의 앞에 두고 있는 일을 위해 능력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머물렀고 그에게 자주 모든 세부 사항까지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 그가 끔찍한 공포의 상태에 빠지게 했고 이 가운데 그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했고 그를 강하게 해주었다. 나는 그에게 항상 밝은 깨달음을 주어 그가 항상 새롭게 인류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주는 역사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게 했다. 그러나 인간 예수가 다른 나라들의 현명한 사람들과 선생들과 교제를 통해 깊은 지식을 얻었다는 일은 전적으로 잘못 된 관점이다. 누가 실제로 나 자신보다 예수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러나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이런 일은 그의 아주 큰 사랑의 결과이다.

예수가 자신의 가르치는 사역을 그의 고향에서 수행할 수 있기 위해 이웃들이 주는 가르침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적으로 불합리한 생각이다. 너희 사람들이 단지 특정한 조건이 갖추면 나 자신이 진리를 이 땅에 전한다는 증거를 얻게 된다면,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나를 향한 사랑과 나에게 대한 전적인 헌신하는 면에서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능가한 예수는 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단지 사랑의 삶이 주는 효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가 다른 나라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예수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만 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내가 단순한 이 땅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일어나게 하는 일인 내가 인간 예수에게 영을 통해 위로부터 순수한 진리를 전하는 일이 인간 예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너희 사람들은 진실로 인정해야만 한다. 예수는 나 자신이 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떠한 선생도 필요하지 않고 가장 깊은 지혜를 나로부터 직접 받아 인간으로써 가르치고 이웃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이제 이런 내 말씀을 가장 순수한 진리로 받을 수 있고 나는 너희가 오류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아직 알지 못하는 영역에 관해 너희에게 설명해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너희 사람들이 예수가 원래 누구였는지 왜 그가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한 형편으로 이 땅으로 임해 이 가운데 성장해야 했는지에 대한 선명한 관점을 얻는 일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다른 모든 사람처럼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모두가 자신 안의 영적인 능력을 최고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었고 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지식을 소유하고 이웃에게 이제 전했다는 것과 그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가르치게 하거나 가르침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이 땅에서 나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최고의 완성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인간이 된 나와 하나가 되었다.

아멘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B.D. No. 3621

1945년 12월 6일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나의 말씀을 내 자신으로부터 나에게 의해 주어진 인간의 말로 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이 어두웠고, 그들이 인간 안의 하나

님의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 자신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이 들었다면,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들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지식을 그들에게 다시 주기를 원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힘을 알려주기를 원했다. 이로써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심장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중개자로서 사람들에게 임했다. 나를 통해 공개적으로 일하기 위해 영원한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머물렀다. 내가 말한 것과 내가 행한 일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형체였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깊은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영을 덮은 겉형체도 마차가지로 아버지의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내 안의 모든 것이 다른 모든 사람처럼 죽어야만 하는 겉형체였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을 향해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겉형체는 겉형체 안에 있는 영을 통해 죽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인간 예수였다. 그러나 단지 겉형체에 따라 인간 예수였다. 왜냐하면 내 안과 내 겉의 모든 것이 사랑을 통해 영화되었고, 영원으로부터 내가 분리될 수 없게 연결이 된 영원한 사랑과 하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영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존재 안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나의 육체의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냈고, 자신을 지혜와 사랑과 전능함으로 깨닫게 했다. 이 땅에서 행한 나의 역사가 나를 믿은 사람들에게, 단지 하나님만이 가능하고, 나의 의지가 수행할 수 있는 기적을 통해 신성을 증명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의 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충만하게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죽어야만 하는 겉형체 사이에 더 이상 어떤 분리도 없었고, 겉형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이 겉형체를 완전히 채웠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겉형체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았고, 이런 일은 단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통해 말했다. 영원한 말씀 자체인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신을 입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영원한 사랑의 신비에 대해, 영원한 아버지 영에 대해, 사람들과의 연결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대해 더 이상 알지 못했다. 말씀의 힘이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면, 말씀의 힘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이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자신 안으로 흡수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형성한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임했고, 사람들을 그들의 어두움에서 구원해야 할 지식을 그들에게 다시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나를 사람으로써 박해했다. 나는 사람들의 의지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게 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었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채우신 분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보았지만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은 보

지 못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 눈이 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지혜와 전능함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 앞에서 모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눈앞에서 영화 되어, 빛나는 빛으로 높은 곳으로, 그들의 영원한 고향인 나라로 떠오르는 하나님의 걸형체를 보았다.

아멘

시험에 대항하는 예수의 싸움.

B.D. No. 7056

1958년 3월 5일

내 이 땅의 삶도 너희가 극복해야만 하는 같은 시험과 싸움이 있었다. 나도 이 땅의 모든 육체의 입자들을 올바른 질서 아래 두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나는 정욕을 알았고 이 정욕에 대항해 싸워야만 했다. 왜냐면 나도 너희를 힘들게 만드는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내 안의 의지의 능력이 연약함을 다스렸다.

그러므로 나는 내 육체에 강제를 행했다. 나는 내 육체가 내 혼을 능가하는 권세를 얻지 못하게 하고 종이 된 인류 가운데 거할 때 내 안에 불타오르는 사랑의 힘으로 육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나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짓누르는 위험을 보았다. 내 안에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의 육체적인 갈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갈망을 따르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내 육체의 욕망에 주의하고 성취시켰다면, 단지 내 도우려는 의지가 약해짐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아주 어려운 싸움이였다. 왜냐면 모든 방향에서 유혹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내 안의 인성이 만족을 구했다. 그러나 내 혼은 하나님께 향했다. 혼은 공격이 심해질 수록 항상 더욱 아버지와 연결이 되길 구했다. 그러므로 혼은 항상 더 많은 능력을 받았다. 왜냐면 아버지와 연결이 절대로 효과가 없이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쉬운 삶을 살지 않았다. 왜냐면 나는 너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전에 너희의 과제와 같은 사랑을 최고로 확산되게 하여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을 모든 충만함으로 내 안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 이는 이 땅에서 너희의 목표이다.

비록 내 혼이 빛의 나라에서 왔을지라도 그러나 혼은 너희의 육체와 같이 물질인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입자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 권세를 아직 가지고 있는 대적자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입자에게 항상 모든 종류의 욕망과 정욕을 따르게 재촉하는 아주 큰 공격을 받았다.

내가 인간으로써 이에 패배하지 않게 된 일은 단지 저항하게 내 안의 의지를 강하게 한 내 안의 사랑이 가능하게 했다. 어둡고 죄악 된 환경 안에 거하는 일이 악한 영들이 외부로부터 육체를 공격하는 기회를 주었고 유혹하는 장면들로 현혹시키는 기회를 주었다. 이런 현혹은 감각을 무디게 하고 내 저항을 약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는 안 되었다. 나는 그들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만 했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있고 언젠가 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그들도 공허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권세로 이런 악한 영들에게 대항해서는 안 되었고 인내와 온유로 대해야만 했다. 나는 그들에게 대항해야만 했고 그들이 나를 떠날 때까지 내 사랑의 의지로 그들을 달래야만 했다.

나는 인간이었고 인간처럼 싸우고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 왜냐면 이런 모든 일이 내가 내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완성하기 원했던 구속사역에 속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그들의 연약함과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지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자유롭게 되고 영원한 아버지가 연합이 되는데 도움이 되게 모범적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나는 그들에게 사랑의 힘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는 일이 가능한 일임을 증명해주기를 원했다. 즉 사랑이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요 마지막 조건임을 증명해주기를 원했다.

내 안의 사랑이 인간인 나에게 불행한 상태의 원인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고 너희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비로소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구속사역을 목적으로 내 혼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내 안의 사랑이 나에게 구속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주었다. 나는 내가 인간으로써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힘으로 이 역사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을 요청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에게 주기를 간청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내 안에서 받을 수 있게 나 자신을 만들었고 모든 욕망에 내 대적자가 내 안에서 깨어나게 하기 원하는 모든 순수하지 못한 생각에 저항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나는 항상 내 사랑으로 대적자에게 대항했고 대적자는 사랑을 피해야만 했다. 이로써 곧 내 심장 안에 단지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다. 나는 항상 더욱 긴밀하게 영원한 사랑과 연결되었고 영원한 사랑은 사랑을 나에게 선물하고 이제 내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어 내가 강한 의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가게 했다.

그렇지라도 대적자는 물러서지 않고 항상 또 다시 내 의도를 그가 볼 수 있게 될 수록 더 많이 나를 유혹하면서 내 육체를 특별하게 공격했다. 나는 내 죽는 날까지 그에 대항해 싸워야만 했고 항상 또 다시 내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서 내가 내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했다. „만일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와 연결이 더 강했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했다.

나는 인류의 끝없는 비참함을 보았고 항상 강해지는 사랑은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위해 준비되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단지 나 자신의 걸형체였고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었다. 구속사역을 완성한 것은 사랑이었다. 인류의 죄짐을 사해준 것은 사랑이었고 이 사랑이 나 자신이다.

아멘

너희가 인간 예수의 높은 영적인 사명을 깨달으면, 너희는 왜 하나님의 구세주를 쉬지 않고 거론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비로소 그가 빛나는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런 원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속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이 아마도 아직 믿는 인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인간이 축복을 받는 일과의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구속사역이 단지 전해졌고 그러나 그들이 진리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진지하게 설명 받기 원하면, 비로소 그들에게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단지 적은 수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분명한 설명도 영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단지 이 땅의 세상을 인정하고 그들이 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예수의 사명이 비록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단지 세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 사명은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짐을 넘겨주고 그에게 사해주기 원하는 죄짐을 진 형제로써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취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구속받기 원하면, 먼저 이런 구함이 이뤄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죄짐을 인간 예수의 큰 속죄의 제사를 통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을 죄인이 되게 만든 하나님을 대항한 큰 죄를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을 가지 않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구속역사의 범위와 그들이 한때 가졌던 성품과 그들의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항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을 자신 안에 모실 수 있게 이 땅의 삶을 살고 이제 자신의 피조물들을 그들의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기 원하는 영원한 사랑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한 예수의 구속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만약에 단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은 죄를 말하면, 이 죄를 사하기 위해 이런 구속사역이 필요하기에는 사람들에게 자주 적게 보이는 죄를 말하면, 예수의 사명에 대한 이런 설명이 사람들에게 이해할만 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죄는 사랑에 대항하는 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다.

그러나 한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원죄는 아주 커서 존재 스스로 영원한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 원죄를 속죄할 수 없다. 이를 이해하는 일은 너희 사람들에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바로 이런 말할 수 없이 큰 죄는 말할 수 없는 큰 속죄를 요구한다. 실제로 이 속죄를 한 사람이 행했다.

그러나 단지 이 사람 안에 하나님 자신이 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래의 성분인 사랑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그로 하여금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가 속죄를 행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한때 원래 창조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요청했고 이 능력을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긍휼의 역사에 사용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이 원죄의 결과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들의 원래 상태에 실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모른다. 그러나 아주 큰 사랑으로 이 원죄를 사해준 분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들이 절대로 돌아갈 수 없음을 모른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래의 상태에 다시 돌아갈 수 있기 위해 그에게 다시 의식적으로 향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이런 지식이 전해지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전해지는 것을 단지 스스로 생각하고 진리로 영접하고 활용해야 할 아주 말할 수 없게 큰 은혜이다.

왜냐면 그러면 그는 단지 인간 예수에게 향하고 그와 생각으로 대화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도울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면, 그의 죄를 넘겨받을 것이다.

모든 각각의 사람이 만약에 자신이 단지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생각하고 이렇게 된 원인을 헤아려 보려고 하면, 그가 한때 죄를 지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이런 내적인 질문은 대답을 받지 못하고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먼저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세주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면, 하나님의 구세주를 알려 주는 그의 큰 영적인 사명을 알려주는 모든 지식을 주저하지 않고 거부한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준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의 모든 일꾼은 항상 더 큰 열심으로 그의 이름과 그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대적자의 묶임을 받은 존재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스스로 그 안에 긴밀한 연결을 이루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한다.

아멘

예수는 자신의 역사를 미리 알았다.

B.D. No. 6088

1954년 10월 24일

나는 너희를 위해 고통받기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의식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고 나는 너희를 위험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가야만 했던 극도로 어려운 고난의 길을 알았다. 나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은 나에게 전혀 비밀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갔다. 나는 거부하지 않았고 위험을 피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그 길을 갔다. 왜냐면 내가 단지 내 구속역사의 과정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환난 가운데 땅에 쓰러진 내 피조물들의 연약함과 속박을 보았고 단지 십자가의 내 고통과 죽음을 통해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 영의 눈 앞에 모든 것이 밝고 선명했고 내 대적자의 잔인한 권세와 끊임없이 커져가는 심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존재들과의 간격을 선명하게 보았다. 나는 한 쪽의 가장 깊은 어두움을 보았고 다른 한쪽의 가장 밝은 빛과 축복을 보았다. 나는 빛에서 왔고 어두움 속으로 빛을 전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다리가 필요했고 고통받는 혼을 깊은 곳에서 빛으로 끌어 올릴 권리를 얻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제공해야만 했다. 나는 불행한 피조물들의 생명을 사기 위해 내 목숨을 드려야만 했다. 자신을 내어주고 내가 가진 가장 높은 것을 희생하는 단 한가지의 방법이 있었다. 즉 죄의 결과로 죽은 자들을 향한 사랑에서 내 생명을 희생하는 단 한가지의 방법이 있었다. 나는 내 생명으로 그들의 생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내 눈 앞에 모든 것이 밝고 선명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미 이전부터 겪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내가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갖도록 창조되었고 죽음과 끔찍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나 자신이 무기력하게 될 수 있고 내 힘이 너무 연약해서 내가 실패하면, 타락한 내 형제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의 감정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어나야 할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내 힘이 커졌고 내 힘은 불행한 인류에 대한 내 사랑처럼 커졌고 나는 불행한 인류의 위험을 매일 점점 더 많이 깨달았다.

앞에 놓인 일 앞에 내가 때때로 나약함에 빠졌지만 내가 시작한 일을 완수하려는 내 의지는 약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안의 인간적인 요소가 항상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고 아버지가 나를 힘으로 채워주었고 이로써 내 사랑이 항상 더 강해졌고 내가 마침내 완전하게 의식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죽음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 또한 내 임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쓰라리고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빛으로 올라오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빛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 내가 가장 깊은 어두움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구속역사와 내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게 멸망을 받았을 너희를 돕기 위해 인간으로서 가장 쓰라린 고난과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사는 내 이 땅의 삶은 극도로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겉형체 안에서 자신을 계시한 이래로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일을 알았고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갔고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타락한 자를 향한 내 사랑이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나에게 죽음의 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아멘

수난의 금요일

B.D. No. 8791

1964년 3월 27일

너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과정과 십자가 상의 고통을 측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개념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힘이 인류와 아버지와의 화친을 주는 이런 최고로 어려운 희생을 치르는 것을 가능하

게 했다. 비록 너희가 내 고통과 아픔을 상상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단지 연약한 비교로만 남을 것이다. 왜냐면 이 고통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고통은 너무 커서 진실로 내 십자가의 희생은 유일한 역사이고 유일한 역사로 남을 것이다. 왜냐면 이 고통의 시간을 사람들은 견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사람도 이런 희생을 치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고통의 일부분만으로도 사람들을 죽게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인류의 죄에 대한 올바른 속죄를 드리기 위해 고통을 당하기를 원했다. 나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께 이런 속죄사역이 없이는 절대로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없는 그의 잃은 자녀들을 다시 돌려 드리기 위해 속죄의 희생을 드리기를 원했다. 나는 자유의지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내 타락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 길을 갔다.

나는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운명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두 배로 고통을 당했다. 왜냐면 항상 내 눈앞에 십자가의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십자가로 인도하는 고난의 길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자유의지로 이 사명을 완성했다. 나는 대적자로부터 나에게 의해 구속을 받으려는 준비되어 있는 모든 그의 혼들을 구매했다. 왜냐면 나는 인간들이 연약하게 된 원인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을 얻어 내었다. 이 도움으로 그들은 한때 그들이 깊고도 깊은 곳으로 추락했던 높은 곳에 다시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도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 혼자서는 절대로 다시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았다. 나는 내 타락한 형제들에게 긍휼을 가졌다. 왜냐면 나는 하나님 곁에 있는 축복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포기하였는지를 알았다. 나는 만약에 한 사람이 그들의 한때 아버지로부터 떠남으로 자신에게 짊어진 이 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원히 추방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전적인 의식 가운데 모든 육체적인 그리고 혼적인 고통의 결과를 자신에게 짊어지고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이 길을 끝까지 가서 긍휼의 사역을 완성하는 이 역사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면 나는 모든 육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고 마지막 사명을 수행해야 할 당시에 내가 체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최고로 잔인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내 생각은 점점 더 인간 적이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사하기 위해 한때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사하기 위해 한 사람의 고난을 당하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안의 사랑이었던 하나님은 고통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구속사역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뒤로 물러서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 하나님, 내 하느님, 왜 당신은 나를 떠나셨나이까?"

내 안의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은 고난을 줄이는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내 고통의 정도는 내가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타락한 원래의 영들과 모든 인류의 죄를 생각할 때에 충분하게 클 수가 없었다. 나는 단지 인간으로써 이 사역을 끝까지 마치길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뜻 아래 나를 복종시켰다.

이는 처음부터 내 의지였다. 단지 죽음을 앞두고 짧은 기간 동안 흔들리게 되었고 그러나 나는 다시 다음과 같이 부르짖어 쓸 때 전적으로 그의 의지에 복종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진실로 이전과 이후에 어떤 사람도 다 이룬 적이 없고 다 이룰 수 없는 어려운 제사를 드렸다. 왜냐면 이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능력을 얻었다. 왜냐면 이 사랑이 죽음의 시간까지 내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다음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비록 내가 희생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사랑의 힘을 사용하지 안 했을지라도 나는 아버지와 연결이 되었고 연결되어 남아 있었다. 언젠가는 너희는 이런 내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빛의 나라에 가게 되면, 비로소 너희는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자유의지로 죽음을 선택한 내 형제들을 향한 크고 넘치는 내 사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누구든지 자유의지 가운데 나를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하면, 그리고 그가 내가 내 피를 흘려서 구속한 내가 내 죽음을 통해 속죄한 내 피를 통해 그들을 아버지와 격리시킨 죄의 용서를 받은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면, 다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아멘

인간 예수의 자유의지.

B.D. No. 7992

1961년 9월 15일

십자가의 내 고난과 죽음도 마지막까지 자유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 왜냐면 내가 실제 이 일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들의 미워하는 생각을 나에게 실행에 옮기려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내가 완성한 역사는 내 전적인 자유의지가 이룬 역사이고 나는 이웃들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죽을 자세가 되어 있었다. 왜냐면 인간 예수로써 나는 한때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전 인류가 처해 있는 끔찍하게 처량한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내 사랑이 타락한 모든 내 형제들을 돕기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아버지께 속죄의 제사로 제공했다.

나는 그렇게 행하도록 전혀 강요받지 않았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는 내 의지를 정하지 않았다. 나는 나로부터 울어 나와 전적으로 자유롭게 행했고 이런 역사는 나에게 끔찍하게 어려웠다. 왜냐면 내가 구속사역이 남김 없이 완성되기까지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으로써 아버지께 가장 깊은 고난 가운데 그가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기를 기도하고 싸웠고 나는 강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전적으로 아버지께 드렸다. 왜냐면 내 안의 사랑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이고 영원한 사랑 자신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랑이 인간으로써 내 의지가 이 역사에 저항을 했었다면 불가능했을 내 역사 가운데 나를 정하게 했다.

불행한 인류를 향한 사랑이 나를 이끌었고 나는 그들을 돕기를 원했다.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너희가 측량할 수 없는 정도의 고난을 짊어지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짊어진 죄는 측량할 수 없었다.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인간으로써 측량할 수

없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짊어져야만 했다. 사랑은 힘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었다. 만약에 사랑의 힘이 십자가 상에서 내 육체의 죽음으로 역사가 완성되고 내 십자가의 제사를 영접하고 구속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보장이 되기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으면, 진실로 내 육체가 이미 이 전에 죽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와 내 구속사역을 인정할 지는 다시 사람들의 자유의지 자체에 달려 있다. 왜냐면 모든 존재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 존재가 인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깨닫고 예수 안의 나 자신을 깨닫고 스스로 자유의지로 자신과 자신의 죄를 나에게 맡기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나에게 돌아오기 원하면, 존재들이 다시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이 의식적으로 내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고 자신의 연약한 의지가 강하게 되는 일을 체험하게 되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보장 된다.

그러나 내가 인간으로써 짊어졌던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의 아주 큰 죄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 예수가 사랑으로 충만했고 자유의지로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가장 힘든 희생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제사로 만족하고 그의 타락한 형제들을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원했던 예수의 큰 사랑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했다. 나는 이 제사로 만족했고 그러므로 내 공의가 만족되었다. 왜냐면 속죄가 없이는 내가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속사역은 자유의지로 완성이 돼야만 했다. 나는 어떤 존재 안에서 필요한 속죄를 행하게 요구할 수 없다. 왜냐면 나를 떠난 큰 죄는 내 사랑에 대적하는 죄였기 때문에 속죄는 다시 사랑의 역사 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인간이 예수 안에 있었고 예수는 사랑에게 큰 공간을 제공해 그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사랑이 이제 그가 구속사역을 이루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사랑이 죄를 용서했다.

사랑이 한 사람의 심장을 전적으로 채웠고 이 사랑이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고 나 자신이 인류를 위해 고통을 당했고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예수 자신이 모든 고난을 짊어졌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을 자유의지로 행했다. 왜냐면 사랑은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가장 큰 희생 제사를 드릴 준비되어 있고 사랑은 모든 일을 이루게 한다. 왜냐면 사랑은 가장 큰 고난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사랑으로써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역사했고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했다.

아멘

사랑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다.

B.D. No. 5215

1951년 9월 21일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인간 예수 안에서 무한하게 타올라 그의 혼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힘으로까지 커졌다. 이런 상태는 그를 인간의

세상적인 영역을 넘어선 상태였고, 그는 나와 하나가 된 상태였다. 그런 강한 사랑이 단지 십자가의 희생을 드릴 수 있었다. 왜냐면 사랑의 힘이 그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가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희생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 죽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을 했다. 왜냐면 인간 예수가 자신을 영을 포기하기까지 사랑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희생을 했고,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이 일은 또한 비밀이고, 이 땅이 존재하고 너희 인간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구속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하는 동안에는 비밀로 머물게 될 것이다.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했다. 너희 인간이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사랑이 영원한 신성의 원래의 입자이고 그러므로 사랑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는 역사를 성취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겉보기에 모순이 되지만, 이는 진리이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사랑이 거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 사람은 이미 신적인 사람이었고, 그가 이미 죽게 되지 않은 그가 당한 아주 큰 고난이 이를 증명했다. 그의 인류를 향한 사랑은 아주 깊어 인류를 돕기 위해 고난받기를 원했다.

그는 초인간적 고통으로 인간의 몸의 생명력을 빼앗기에 충분한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힘이 그의 원수들이 그의 육체를 일으켜 세워 십자가에 못박을 때까지, 그의 고통이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의 몸이 살아있게 했다. 그는 내 대적자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박해하는 일을 허용했고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죽음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자임을 보여주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모든 인류가 그의 죽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인 마지막 때까지 나와 연결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워하는 혼은 더 이상 나를 깨닫지 못했고, 자신 밖에서 나를 찾았다. 그러므로 예수가 다음 말을 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당신은 저를 버렸나이까?" 권세가 충만한 하나님이 물러났을 뿐 사랑이 그 안에 있었고, 머물렀다. 사랑은 실제 자체가 힘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히는 일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이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십자가에 못박히는 일을 당할 수 있기 위해 사용했다. 왜냐면 예수는 인간으로서 나를 섬기고, 이웃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의식적으로 죽었고,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나에게 구했고, 전적으로 의식하는 가운데 나에게 다음 말을 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손에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그는 자신과 나 사이의 연결을 유지했다. 왜냐면 그가 사랑을 통해 자신과 하나가 된 존재로부터 자신을 더 이상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였고, 그가 나였다. 우리 둘 사이에 더 이상 분리가 없게 되었다. 왜냐면 나 자신의 원래의 입자인 사랑이 또한 그를 전적을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인간 예수가 그의 역사를 완성할 때까지 내가 힘으로서 역사하지 않고 머물렀지만, 내가 그와 함께 하고 그 안에 거해야만 했다.

그와 나, 우리는 하나이고 그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다. 왜냐면 아버지는 사랑이고, 사랑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죽을 수 없고, 삼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사랑이 또한 이 땅에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고, 예수의 고통을 통해 완전히 영화가 된 육체가 살

아나게 했다. 이로써 사랑이 죽음을 극복했고, 하나님의 구세주는 사탄이 이겼고, 빛이 어두움을 물리쳤고, 영원한 빛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아멘

희생의 죽음이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B.D. No. 8185

1962년 5월 24일

내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도 인간 예수 안의 내 신성을 믿는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사랑 자신이 이런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그가 나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였을지라도 그러나 신성이 그 안에서 떠났다. 다시 말해 예수는 인간으로써 고통을 당했고 죽었다. 나와 하나가 됨으로 인해 소유했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고 이를 통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큰 죄짐을 해결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음의 과정은 전적으로 인간적으로 일어나야만 했다. 왜냐면 어떤 사람에게도 믿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은 믿음의 강요를 의미했을 것이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불러온 소요를 알고 이에 자극을 받았고 그들이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 한 사람에게 행해진 심판 때문에 근심을 했다.

그러나 이는 신성 자신이 인간의 예수 안에서 완전한 희생 제사였고 이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 이는 이렇게 돼야만 한다. 왜냐면 구속사역의 은혜를 영접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행위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 안에 영원한 신성 자신이 육신을 입은 세상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자신을 영접하고 그에게 헌신하는 일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용서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믿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영접할지 그의 은혜의 제사를 영접할지 자유롭게 놔둬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그의 죽음을 참관한 나중에 그의 죽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에게 전혀 강요를 하지 않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일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구속사역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의심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왜냐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데는 어느 정도 혼의 성장을 요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나에게 향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직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그에게 아무리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을 수 없다. 왜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막으려고 모든 것을 시도할 대적자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영이 자신을 가르치게 허용하면, 그가 사랑의 삶을 통해 내가 생각으로 역사할 수 있게 하면, 그는 전적으로 확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공훈의 역사의 진리를 확신하는 것은 외적인 증거 때문이 아니고 그의 생각이 진리 합당하게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십자가의 희생의 연관 관계와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는 증거가 없이 믿을 수 있다. 모든 증거는 사람들에게 강요이고 강요로 남는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유로운 의지의 시험하는 것이 유일하게 결정적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인정하고 영접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접하게 강요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어난 일을 실제로 일어난 대로 한 범죄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끔찍한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예수는 자신의 권세로 진실로 이 죽음을 자신에게서 피하게 할 수 있었다. 왜냐면 예수는 나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 그에게 이렇게 할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적으로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 자유롭게 되게 도와줄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었다.

그러나 항상 단지 그가 아주 큰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 나 자신이 이었던 사랑이 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도 견딜 수 없는 넘치는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통해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는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들도 갑자기 나에게 전혀 권세가 없는 것을 봤을 때 나에게 행하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고 그들이 자주 나로부터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권세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봐야만 했을 때 나를 의심했다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십자가의 희생이 완성되지 못했으면, 내가 인간으로써 이 땅에 거한 것은 쓸모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내 가르침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항상 연약한 가운데 내 대적자에게 남았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해결 받지 못한 죄짐이 그들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없는 인류에게 놓여 있는 그들의 연약함이고 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들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 나 자신이 끔찍한 죄짐을 짊어지고 이 죄짐을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공훈의 역사를 통해 절대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공훈의 역사를 통해 해결했다.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 가운데 이런 내 공훈의 역사를 깨닫고 영접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그는 그가 한때 인정하는데 실패했던 이로써 깊은 곳으로 타락했던, 나 자신을 깨닫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의 영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B.D. No. 1739

1940년 12월 15일

십자가의 죽음 후에 예수님의 영화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한다면, 동시에 예수님의 “나 **십**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극복하고, 자신의 혼을 형성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한,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을 희생했다. 그의 외형인 그의 몸은 혼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고, 마찬가지로 단지 거룩한 하나님을 향했다. 그러므로 모든

입자가 하나님께 향한 영적인 존재였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더 이상 이 땅의 성장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육체가 죽은 후에 모든 온전함으로 영의 존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

모든 온전한 영적인 존재들은 근원의 힘과 연합하고, 가장 긴밀한 융합을 통해 근원의 힘과 하나가 된다. 한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의 과정은 무한한 시간 동안 지속되고 또한 저세상에서 수많은 단계를 거쳐 높은 곳으로 인도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덜 성장한 영적인 존재인 겉형체는 항상 뒤에 남고, 혼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혼은 영적인 존재로서 저세상에서 같은 정도로 성숙한 존재를 찾게 된다. 겉 겉형체는 분해가 되고, 각각의 영적인 입자는 그들의 성장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비슷한 물질과 다시 연결이 된다.

그러나 예수의 몸은 그의 순수함과 사랑의 역사에 있어서 이미 영적인 완성에 도달했다. 십자가의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이 형체가 된 영적인 입자의 마지막 정화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입자가 완전히 정화되고 온전한 혼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입자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영과 혼과 몸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나란히 생각해야 하는 두 존재가 아니라, 모든 온전함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단지 하나의 존재이다. 예수의 신성은 영원한 신성 자신이고, 이와 다르게 생각할 수 없다. 단지 인간 예수의 외형이 영원한 신성에 속하게 되었다. 인간 예수의 영적인 입자들이 근원의 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입자들이 이미 예수가 죽을 시에 하나님과의 가장 긴밀한 연합을 위한 전제 조건인 온전한 정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몸은 이 땅의 기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엄격한 자기 수양을 통해 모든 물질의 정복자가 되었고, 따라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그 안에 변형된 모든 영적인 입자들은 혼과 합류할 수 있었고, 동시에 혼과 함께 빛이 있는 높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땅의 계곡을 떠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혼의 주변이 가장 빛나는 빛이었고, 결과적으로 예수의 몸과 혼은 변형된 상태로 이 땅을 떠나야만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융합된 존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능력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영원한 신성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빛과 힘을 발산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존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또한 모든 충만한 빛과 권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빛을 발산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다. 그러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세와 영광의 증거를 주고, 세상에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선포해야 할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주기 위해, 예수를 따르고, 이 땅에서 예수와 같은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영화된 예수를 보게 했다.

예수님의 영화는 인류에게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화로 여기고 예수님의 영화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하나님과의 마지막 연합을 위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연합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예수의 혼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그러므

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과 능력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게, 그러므로 그는 모든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게 자신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자신의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되었고, 아버지처럼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었다. 그의 본질은 사랑이었고, 그의 말씀은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을 향한 그의 큰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단지 사랑이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 땅의 행로는 화려함이나 영광이 없는 끝없는 일련의 기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의 눈 앞에서 자신을 영화 시키고 높은 곳으로, 영원한 영광을 향해 올라가면서, 찬란한 빛 가운데 끝을 마쳤다.

아멘

예수의 부활과 영화.

B.D. No. 7693

1960년 9월 6일

내 혼과 마찬가지로 내 육체도 영화되었다는 것을 너희는 안심하고 진리로 영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장 과정을 아직 가야만 하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도 무덤 안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너희는 안심하고 진리로 영접할 수 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모든 입자들을 영화시켰다. 다시 말해 나는 인간 예수로써 모든 입자들을 영원한 내 아버지에게 향하게 했고 내 안의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어떤 것도 육체에 더 이상 없게 되었다.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나 때문이거나 내 육체의 영화를 위해 당한 것이 아니고 이 고통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내 육체는 아직 인간적인 요소이고 육체가 큰 고통을 느끼고 견디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했을 때 나는 내가 영화 된 증거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내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났고 그러므로 육체와 혼이 부활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육체와 혼이 영화되는 일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이제 이런 영적인 존재를 무덤에 묶어 둘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영은 모든 것을 비록 가장 굳은 물질이라도 통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육체를 영화시키는 일이 나에게 가능했다. 왜냐하면 나는 전적으로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고 사랑이 모든 순수하지 못한 입자를 분해시켰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 순수하지 못한 것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사랑은 영원한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것을 보장해주기 때문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분해시키고 이제 영원한 근원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단지 가장 순수한 것만 남겨두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랑 가운데 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변화되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 육체를 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물질적인 입자를 올바른 질서 안에 있게 할 것이다. 물질적 입자 안에 묶임을 받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영원한 사랑인 나에게 향하고 한때 자신의 입자를 굳어지게 한 물질 안으로 파문을 받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모든 저항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너희 육체를 영화시키는 일은 이 땅에서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가능하다. 그러면 너희 육체는 혼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너희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체험하는 일이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는 것을 너희는 믿을 수 있고 내 육체가 무덤으로부터 일어섰다는 것을 너희는 믿을 수 있다. 왜냐면 인간으로써 내 삶은 진실로 육체가 영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계속되는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한 아버지와 연합을 이루었고 나는 전적으로 그에 의해 충만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성품밖에 있지 않게 되었고 나는 그와 영원에 영원까지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없다.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고 모든 것을 통과하는 영이기 때문이다. 그를 인격화 할 수 없고 그를 볼 수 없다. 만약에 존재가 자신을 높은 정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않았고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 내 안에 거했던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멸시켰을 정도의 힘과 빛이다. 나는 소멸되지 않고 이런 빛과 능력으로 전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영화 된 육체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태를 유지했고 그러므로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한 존재들로서 나 자신 앞에 나온 존재들에게 내가 볼 수 있게 머물렀다.

모든 공간을 채우는 영원한 큰 영이 인간의 형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고 내가 창조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너희가 스스로 사랑이 충만하고 나와 하나가 되면, 너희 사람들이 비로소 이해하게 될 나 자신이 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부활의 문제와 육체와 혼이 영화되는 일과 내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전적으로 하나가 된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이해할 것이고 너희는 나와 전적으로 연합이 된 것이다. 너희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로 깨닫는다. 왜냐면 그와 나는 하나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의 몸이 영화 됨.

B.D. No. 8574

1963년 7월 29일

나 자신의 볼 수 있는 걸형체로서 예수그리스도의 몸은 다르다. 그의 몸은 전적으로 영화되었고 그의 몸은 실제로 세상적인 물질이었고 그의 몸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나에 의해 창조 된 존재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머물게 하기 위한 몸이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신적인 능력으로 생성되었고 동시에 이 몸은 이 땅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온 같은 영적인 입자였고 영적인 입자들의 요구와 충동과 연약함을 가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로부터 영향을 받는 환경에 대응해야 했다. 이로써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의 몸은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육체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에 반응했다. 그러나 항상 또 다시 예수의 의지에 능력으로 이런 모든 유혹에 저항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싸움이 필요했고 사랑 안에서 역사하려는 지속적인 자세가 필요했다. 왜냐면 예수는 모든 입자를 구속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자들은 예수가 그의 혼 안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에 자신의 혼과 연결이 되었던 입자들이다. 그러나 이런 입자들은 어떤 다른 타락한 원래의 영에 속하지 않은 내 창조의 작품이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안에서 사람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택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또한 그의

육신의 겉형체를 이루는 구속되어야 하는 입자들을 가졌다. 그러나 혼 안의 입자들은 혼에 속한 입자들로 머물렀다.

다음을 이해하라. 예수의 육체와 마리아의 육체는 순수하고 죄가 없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는 죄악 된 세상에 거했고 그러므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었다. 그의 육체는 이런 가운데 자신을 증명을 해야만 했고 이런 공격에 대항해 더욱 심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물질을 통해 자신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고 대적자가 순수한 혼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대항해 싸워야 하는 일과 모든 사람의 과제인 대적자의 유혹의 역사가 최고로 다양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이를 아직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너희는 예수의 몸과 마리아의 몸이 남김 없이 영화 되었다는 것과 그럴지라도 자신의 겉형체를 영의 나라로 가지고 갔고 이를 유지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왜냐면 내가 나에 의해 창조 된 모든 존재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길 원했고 절대로 다시 분해가 될 수 없게 몸과 혼이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혼에게 아직 구속받지 못하는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달라붙어 공격한 일이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런 어두움의 세력과의 싸움이 아주 어려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분명하게 한다. 왜냐면 이런 세력들이 내 대적자의 명을 따라 예수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절대로 자신의 육체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를 시험하기 위해 모든 외부에 있는 것들과 예수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했던 어두움의 세력 편에서 주는 유혹들과 싸워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의 순수하고 죄 없는 육체는 측량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모든 종류의 공격에 대항해 싸워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구속했고 이로써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인간으로써 이 땅에서 마지막 성장을 이뤘다. 이런 사람들을 분명하게 예수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일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자주 알아볼 수 있다. 예수의 순수하고 죄가 없는 육체 때문에 그의 싸움이 쉬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영접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가 지속되는 성장 과정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돕고 구속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떨쳐 버려서는 안 되는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넘치게 그의 혼에 달라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의 육체가 남김 없이 영화 된 상태에서 혼에게 속하게 되었고 속한 가운데 머물렀다는 일이 너희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믿을만 하게 돼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한 사람 안에 거한 일이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순수한 영적인 잉태와 태어나는 과정들처럼 모든 특별한 조건들을 전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예수는 한 사람이었고 그의 싸움과 모든 육체의 입자들이 영화되게 하는 일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고 사랑과 고난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항상 단지 사랑과 고난이 사람들이 남김 없이 영화되는데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 내 사명이 성취되었다. 나는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했다. 나는 부활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을 가는 내 제자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나타났다.

나 자신이 빛과 능력으로 충만했다. 나는 이제 내가 나왔던, 빛과 축복의 나라인 내 나라에 다시 가기 위해 이 땅을 떠날 수 있었다. 왜냐면 내 육체는 용화되었기 때문이다. 내 육체는 영적인 옷이고 더 이상 자연의 법칙에 구속을 받지 않고 내 의지가 원하는 곳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영원한 신성이 자연의 법칙 아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영원한 신성이 필요로 하는 영원한 신성을 자신 안에 영접할 수 있기 위해 높은 성장 정도를 소유해야만 하는 형체를 그에게 제공하기 위해 영원한 신성을 자신 안에 영접한 내 육체는 영원한 내 아버지 영처럼 형체에 묶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간을 채우는 인간 예수인 나 자신을 채우는 영이기 때문이다.

이제 내 사명은 끝나게 되었다. 하늘로 승천하는 일에 대해 증거를 남겨 두어야 했다. 왜냐면 이는 대관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류에게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완성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증명하는 증거였다. 왜냐면 내가 승천하였을 때 나는 모든 자연의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영광으로 쌓여 있었다. 그러나 내 제자들은 나를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진실로 소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을 통해 나와 긴밀하게 연합되었던, 그러므로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성장 정도를 이미 소유했던 제자들만 단지 나를 볼 수 있었다. 어떤 혼들은 이와 같은 상태로 이 땅으로부터 빛의 나라에 들어 간다. 이런 혼들은 영광과 빛 가운데 있는 나를 보는 일이 가능하다. 왜냐면 그들의 성장 정도가 영적으로 보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런 혼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영광을 덧입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얼굴을 대면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원래의 요소인 동시에 빛과 능력인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는 모든 혼이 충분히 성장을 한 후에 이 땅의 삶을 떠나 저세상으로 갈 때에 입을 수 있는 너희의 영의 옷이다. 너희는 이를 믿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들 모두에게 언젠가는 그때까지는 너희가 아직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권세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 무엇에 도달할 수 있는지 증거를 주었다. 만약에 사람이 이 땅에서 항상 내 의지에 따라 살면, 만약에 그의 삶이 자신의 성품을 내 원래의 성품과 같은 사랑으로 바꾸어서 그러므로 모든 빛남과 모든 영광으로 비추어지게 되고 같은 성장 정도에 도달했고 그리고 자신을 빛과 능력을 발산하는 존재이고 모든 영원까지 발산하는 존재로 남을 나와 하나가 되게 만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런 사람의 운명이 어떠한지 증거를 내가 주었다.

승천하는 일은 실제로 진실로 일어났다. 인간 예수는 빛나는 빛의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을 떠나 그의 혼이 나왔던 나라로 향하였을 때 이 땅에서 자신의 신성에 대한 마지막 증거를 주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았다. 그러므로 승천은 내가 이 땅으로부터 오지 않고 이제 다시 내 목표였고 영원히 너희의 목표이고 목표를 남을 빛과 영광의 나라로부터 내려왔다는 마지막 증거였다.

너희들도 빛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 다시 내 빛과 내 능력을 모든 충만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한다. 부활해야 하고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하늘로 승천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B.D. No. 8250

1962년 8월 24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 더욱 어두워지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와 하나가 된 것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데에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에 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르침 받은 것으로 인해 잘못 된 생각에 도달했다. 그러나 영원한 신성은 인격화 될 수 없음을 항상 또 다시 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신성을 모든 무한한 것을 채우고 있는 능력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고 이 능력은 제한이 없고 그러므로 형태로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능력은 한 형체를 전적으로 채울 수 있고 신적인 능력이 전적으로 비추어 채워지는 과정이 인간 예수에게서 일어났다.

예수는 사랑이 충만했고 사랑은 영원한 신성의 근원적인 성분이다. 이 사랑은 무한한 세계를 향해 쉬지 않고 비추고 있고 모든 것을 생성되게 했고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런 신적인 사랑의 힘이 인간의 형체 예수를 비추어 채웠고 사랑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원래의 속성이 인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예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성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되었고 전적으로 영화 된 인간적인 걸형체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로써 예수는 이제 상상해볼 수 있는 신성이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두 인격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인간 예수는 이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모든 피조 된 존재들이 도달해야 할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목표에 도달했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창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완성은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도달해야만 한다. 인간 예수는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역을 통해 인류의 죄를 용서했다. 왜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는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이고 이런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원래의 요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그렇지라도 너희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면, 이는 오류로 인도하는 개념이다. 왜냐면 영원한 하나님은 인격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원한 하나님은 단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서 이제 역사하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단지 예수 안에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한때 창조 된 존재들이 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옆에 계신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존재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영화 된 형체에 비추어 채울 수 있는 사랑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힘은 단지 신적인 근본 요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지 자신을 영화시킨 존재만이 이 사랑의 힘을 볼 수 있다.

만약에 아버지 아들 성령을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으로 아들을 지혜로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는 의지나 권세로 인정을 하면, 실제 유효하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지혜와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할 때 세운 목표가 이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고 이런 목표에 도달하면, 이런 일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과 볼 수 있는 예수 안의 신성을 설명한다. 반면에 세가지 인격을 가진 신성은 전혀 올바르지 않고 진리에 합당한 설명을 해줄 수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개념을 만들어 내었고 이로써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었다. 왜냐면 세가지 서로 다른 신들을 불러서는 안 되고 단지 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 안에서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예수 안에서 경배받을 수 있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한때 그를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동시에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원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이다.

B.D. No. 8422

1963년 2월 25일

너희가 가장 깊은 지혜를 영접할 능력이 있으면, 너희는 가장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단지 영이 깨어난 사람들이 이 모든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에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진리를 갈망하고 너희의 생각이 아직 전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얻기를 갈망하면, 나는 항상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울 것이고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너희에게 말을 해줄 것이다. 나는 내 자녀들의 깨달은 정도에 알맞게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음성으로 말할 것이다. 실제로 내 성품은 헤아려 볼 수 없다. 비록 너희가 계속하여 더욱 완성에 도달할지라도 너희에게 내 성품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헤아려 볼 수 없게 남을 것이다. 그렇지라도 너희는 최고의 온전함을 추구해야 하고 이로써 마침내 나와 의 연합을 이뤄야 한다.

너희는 전적으로 내 성품과 같아져야 하고 너희가 한때 발산되어 나온 빛의 불씨로써 다시 영원한 내 사랑의 불과 하나가 되게 할지라도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 남을 것이다.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희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하나가 되는 과정은 단지 모든 온전한 존재에게는 더 이상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와 연합이 실제 전적으로 내 사랑의 힘이 채워질 수 있게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 자신이 너희에게 영원히 도달할 수 없게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절대로 나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면 너희가 나를 제한된 존재로 상상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내가 시간과 공간에 묶여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전적으로 나로부터 온 내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긴밀하게 연합이 될지라도 너희는 영원히 더 이상 너희가 너희라는 의식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무한한 가운데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 역사할 것이고 이런 일이 바로 너희의 축복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세운 목표인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일에 도달한 것이고 너희가 내 형상이 된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원래 성품 안에서 나와 똑같이 되었고 너희는 가장 밝은 지혜의 빛 안에서 제한이 없는 능력을 소유한 가운데 전적으로 자유함 가운데 너희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생성되게 하고 역사하며 창조할 수 있게 된다.

너희는 내 축소물의 된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혼도 같은 법칙 아래 있었고 예수의 혼은 나로부터 발생된 존재로서 그의 의지의 시험을 치러야 했고 합격했다. 그러므로 원래 창조된 영의 무리들이 나로부터 타락하였을 때 그는 나에게 머물렀다. 그는 사랑 안에서 나에게 전적으로 복종해 자유의지로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그들을 구속하고 내 자녀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인간으로써 타락한 형제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는 이 땅의 사명을 위해 나에게 자신을 제공했다.

인간 예수는 전혀 전에 없었던 절대로 이 후에 인간이 행하거나 행하게 되지 않을 일회적인 역사를 완성했다. 그는 이 땅에서 이미 자신과 나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게 했고 혼과 육체를 남김 없이 영화시켜 그에게 전적으로 비추임을 받을 수 있게 된 일을 그의 승천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했다. 그 안에서 나 자신이 현현할 수 있었고 영원한 신성이고 모든 것을 채우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권세인 나 자신을 절대로 인격화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한 형제에게 전적으로 비추어 이 형제에게 어떤 인간적인 것도 더 이상 남지 않게 할 수 있다. 육체는 내 영으로부터 나온 영의 겉형체였고 혼은 내 안에서 완전히 자신을 바쳐 성취되었고 예수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였다. 그의 의지와 그의 생각과 그가 행하는 일이 내 뜻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었고 더 이상 두 존재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다. 나에 의해 창조된 모든 존재에게 예수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이였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남게 되었다. 자신을 의식하는 예수의 혼은 자신의 혼 안에서 원래의 존재로 돌아 가게 되었다. 왜냐면 혼은 마찬가지로 발산되어 나온 사랑의 힘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힘은 단지 원래의 능력과 하나가 되어 원래의 능력 안에서 전적으로 헌신해서 예수를 이야기하면, 이제 단지 원래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의 혼은 완성에 도달한 영으로써 이 땅으로부터 돌아온 것이 아니고 혼은 이 땅에서 영원한 신성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드렸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가장 큰 비밀을 위해 자신을 포기했다. 즉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된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예수는 두 번째의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의 이 땅의 과정은 그가 나와 남김 없이 하나가 되어 내 뜻과 내 생각이 단지 그를 지배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영의 나라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최고요 마지막이 되게 했다. 너희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는 일은 너희에게 더 이상 상상력이 제한이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성품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헤아려 볼 수 있게 머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무한 가운데 최고로 온전한 존재인 너희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 안에서 너희가 볼 수 있게 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이 더 이상 없음을 알 것이다. 너희는 그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항상 영원히 그를 추구할 것이다. 그는 너희의 사랑에 응답하고 너희를 넘치게 행복하게 할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에는 제한이 없고 그러므로 축복에도 더 이상 제한이 없게 될 것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 졌다.“

B.D. No. 7031

1958년 2월 2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 졌다.“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나는 이 말을 할 권리를 가지고 말했다. 왜냐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이런 권세를 준 분은 내 아버지이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고 그러므로 아버지가 나를 전적으로 채워 아버지 자신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했기 때문이다.

이 권세는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도 나에게 머물렀다. 왜냐면 내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단지 내 이 땅의 걸형체 만이 인간적인 것이었고 그 안에 거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자신의 존재를 볼 수 있게 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가 실제 „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 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 안의 신성 자신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로 여길 수 있었다. 왜냐면 영원한 창조주의 영인 나와 나를 자신 안에 영접한 그 사이에 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권세를 나 외의 어떠한 존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 권세가 자체가 사랑과 지혜와 전능함이 내 원래의 성품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단지 내 뜻 만이 다스림을 이해할 것이고 그러므로 단지 내 위임을 받은 존재만이 있을 수 있거나 또는 내 뜻에 저항하는 존재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고 첫 번째 존재는 나와 함께 다스리고 반면에 두 번째 존재는 다스림을 받아야만 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비록 영원한 내 뜻과 내 권세가 줄어들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항상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나는 나에게 대적하는 의지가 한동안 활동하게 놔둔다. 그러나 항상 내 권세에 제한이 없음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 어느 정도의 경계를 둔다.

왜냐면 유일하게 내 권세 만이 존재하게 보장하고 성장을 보장하고 대적하는 역사를 하는 동안에 완성에 이를 가능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대적하는 역사를 적당한 때에 중단시키지 않으면, 전적인 파괴를 의미한다. 즉 나에게 권세가 주어 졌다. 이 사실이 너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누가 유일하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는지 너희가 권세가 충분한 보호자와 돕는 자가 필요하면,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너희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전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준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신성인 무한한 영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부를 때 비로소 너희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권세 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단지 한분이다. 모든 창조물들이 그의 권세 아래 있고 그의 사명을 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이 창조물들을 돌본다. 그는 그의 영원한 구원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한다.

존재들은 나 자신으로부터 내 지시를 받는다. 그들은 나 자신으로부터 그들의 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받는다. 내 사랑과 지혜에 합당하게 모든 것이 나 자신의 인도를 받는다. 끝없이 많은 창조의 작품들을 유지하고 돌보는 일을 맡은 어떤 존재도 절대로 내 뜻에 대항해 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 뜻이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완성에 이른 존재들이고 내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고 내 지혜로 충만한 비추임을 받고 내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항상 내 뜻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뜻이 잠시 뒤로 물러서는 곳에서 성숙하지 못한 나를 떠난 존재들이 공격하며 실제 나를 대적한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내 지배 아래 있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그들은 내 뜻에 의해 묶임을 받는다. 왜냐면 단지 한 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단지 한 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 빛의 존재들과 어두움의 존재들 모두가 이 한 분에게 복종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 권세에는 제한이 없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제한이 없는 상태로 머물기 때문이다.

아멘

구속역사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

B.D. No. 8587

1963년 8월 15일

너희가 한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으로 인해 너희 사람들에게 단혀져 있는 빛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나 자신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긴급함으로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 내 말이 항상 너희에게 울려 퍼져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원죄로부터 구속을 받기 위해 이 땅의 과정을 가는 것이다.

너희의 자유의지가 구속받기 위한 추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진리에 합당한 예수의 구속 사역의 이유와 의미에 관한 설명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는 너희가 자유의지로 그를

위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이에 관한 지식을 전달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너희가 이 땅을 떠나야만 하게 되어 저세상에 가면, 너희의 미래의 운명이 정해질 것이다.

항상 또 다시 이 지식이 너희에게 전해졌다. 그러나 너희는 대부분 이로부터 결과를 내는 데에 무관심 해했다.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희가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과정을 위해 너희가 올바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이다. 왜냐면 아주 빠르게 인간으로써 이 땅의 시간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의 삶에서 하지 않은 것을 비록 너희가 영원히 더 이상 버림을 받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더 이상 나중에 보충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 예수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는 너희를 위해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너희가 이 땅의 삶 동안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은혜를 구매했다. 비록 단지 너희가 한때 나로부터 타락함으로 인해 지은 죄로부터 다시 자유롭게 되면, 이루어 지는 나와 연결이 선행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는 너희에게 생명을 다시 구매해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너희는 먼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내 공의가 만족되게 한 사람이 너희를 위해 속죄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왜냐면 나는 전적으로 온전하고 비록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끝이 없을지라도 공의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가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위한 사랑에서 속죄제사를 드렸다. 이로써 나에게 오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너희가 이제 인간으로써 이 땅에서 살면, 너희는 너희의 한때 지은 죄를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야 하고 죄를 위해 죽으신 분에게 넘겨드려야 한다.

너희는 한때 지은 너희의 큰 죄로부터 속죄를 받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만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죄가 빛의 나라에 들어 가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히 어둠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왜냐면 한때 지은 죄가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빛을 막기 때문이다. 죄가 절대로 죄악 되게 된 피조물과 하나가 될 수 없는 나와 너희를 격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죄를 가지고 인간으로 이 땅에 거하게 됐다는 것을 너희의 이 땅의 삶이 짧다는 것을 그러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전적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고 예수가 너희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면, 너희가 이 땅의 삶 동안에 예수를 찾으면, 너희가 너희를 그에게 맡기고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택했으면, 그리고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그의 나라에 들어 갈수 있으면, 가장 축복된 존재로써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전적인 자유의지로 너희 자신을 예수에게 헌신해야만 함을 그러므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라. 왜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그의 사랑이 너희를 다시 나에게 인도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고 죽었음을 깨달으면, 너희도 너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에게 증명한 그의 사랑이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런 사랑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예수 안의 너희의 영

원한 아버지인 나 자신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말을 하고 올바른 개념을 줘야 한다. 항상 또 다시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을 자신 안에 모신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에 합당한 지식이 너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나 자신이 너희를 너희의 죄로부터 구속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인간적인 형체를 사용해야만 했다. 인간 예수는 사랑이 충만했고 나에게 자기 자신 안을 거할 곳으로 제공했고 내 사랑이 그의 인간적인 형체를 감싸 안았다. 그러므로 형체가 나 자신을 모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제한이 없는 영이다. 그러나 제한이 있는 형체를 창조함으로써 한때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존재 안에서는 깜짝할 사이라도 소멸되지 않고 내 모든 사랑의 불길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었다.

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영화 시킨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는 즉 이제 모든 존재들이 어느 정도 성장에 이르면 대면해 볼 수 있게 된 형체가 된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 너희 사람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인간이 된 큰 비밀을 더욱 가까이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해 줘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인간적인 이성만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에 대한 해명을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단지 사람 안의 영에 맞출 수밖에 없다. 이 영이 먼저 이전에 사랑을 통해 생명으로 깨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너희에게 전해진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게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러면 너희는 올바른 길을 갈 것이다. 너희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너희는 죄와 죽음에서 구속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인정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B.D. No. 5844

1954년 1월 3일

너희 사람들은 단지 나를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밖에 없다. 거부하는 일은 너희에게 전혀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고 너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면 나를 거부하는 일은 그가 아직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공개적으로 나에게 저항하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인정하는 일은 그가 전적으로 내 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그가 영원한 내 질서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일을 의미하고,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고 나를 추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나를 추구하는 일은 단지 사랑의 삶을 통해 가능하다. 왜냐면 단지 사랑의 삶이 나와 연합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단지 “예” 또는 “아니오” 만을 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단지 입술로 나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입술로 말한 것에 심장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회피하는 말로 사람들이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의 방식이 나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일을 알게 해주지 않고, 너희의 삶의 방식에 사랑이 없고, 너희 심장 안에 내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너희 안의 믿음이 아직 아주 생명력이 없어 너희의 혼에 대한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긴밀하게 도움과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너희의 길을 갈 때, 너희가 나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너희의 모든 말은 단지 너희의 진정한 혼의 상태에 대해 내가 속지 않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고, 나 자신을 거부하는 일과 같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또한 나와 함께 살고, 그는 계속해서 항상 또 다시 나와 생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나와 긴밀한 대화를 하고, 내가 아버지처럼 그에게 말하게 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내 자녀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영원히 되찾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고, 구속받은 사람들에 속한 사람이다. 왜냐면 구속 역사의 은혜를 통해 나에게 다가가려는 그의 의지가 단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단지 나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은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즉 의식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나를 추구하지도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생명력이 있게 된 사람이 비로소 나를 진지하게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람들을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 자신에게 너희가 얼마나 진지하게 나를 추구하는 지, 어느 정도 추구하는 지 질문해보라. 너희가 아직 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았고, 너희가 단지 외적으로 나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기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 삶의 방식이 나와의 모든 연결을 이루지 않으면, 너희가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믿지 말라.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아직 찾지 못했고, 너희가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하게 호소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이 없이 아직 대적자의 결박 속에 있다면, 말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한 기독교 교파에 속하는 일이 너희를 내 나라의 후보자가 되게 하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죄를 고백해야만 하고, 그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로 말미암은 속죄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의 부름이 들리면 큰 소리로 "예"라고 답하는 무리에 속하게 되고, 아버지께 달려가고, 최종적으로 내 대적자와 결별하고, 나를 긴밀하게 사랑하고, 나와 결혼하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나에게 속해 머무는 사람들에게 속하게 된다.

아멘